

원 죄 기

문학

정답과 해설

I 시가 문학

시가 문학 필수 개념

1 시의 언어, 시어

대표 유형으로 확인

019쪽

1. ② 2. ④

1. 2~4연의 ‘꽃’, ‘무엇’,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같지만 시어를 달리하며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1연~3연은 비슷한 구절에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의 반복과 변화, 그리고 3연에서 ‘나’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가 4연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반복과 변화를 통해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화자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③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④ 과거와 미래가 대비되고 있지 않으며, ‘나’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이 나타날 뿐이다.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
- ⑤ 1, 2연에서 비슷한 행이 반복되고 있지만 같은 형태의 연이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

2. [D]에서 ‘눈짓’은 가치와 본질을 인정받아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으로, 화자가 소망하는 상태이다. 즉,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오답 분석

- ① ‘몸짓’은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의 ‘그’, 즉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 상태의 대상을 뜻한다.
- ② ‘꽃’은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의 ‘그’, 즉 의미를 부여한 후의 대상을 뜻한다.
- ③ ‘빛깔과 향기’는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것으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나의 본질과 가치를 뜻한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서로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 시의 말하는 이, 화자

대표 유형으로 확인

021쪽

1. ① 2. ②

1. 화자는 ‘세사 번뇌’와 ‘무궁한 사랑의 슬픔’으로 인해 괴로워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체념하지 않고 적극적 태도로 수를 놓으며 종교적 해탈 경지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화자는 세사 번뇌를 참아내고 극락 정토에 가는 길을 구하고자 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자수라는 정적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내면의 평안과 순결함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적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소망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수를 통해 사랑의 슬픔을 느끼고 세사 번뇌에 빠진 자신의 삶을 응시하고 성찰하며, 이를 참아 내고자 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금실 은실 청홍실’은 화자가 놓고 있는 수실의 다양한 색상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마음 속에 다양한 번뇌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마음속 번뇌를 조용히 응시하며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화자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3 시의 표현 기법

대표 유형으로 확인

023쪽

1. ① 2. ③

1. ‘천 년을 외파로 살아간들 /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임과의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고, 임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임과의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는 내용은 있으나,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지는 않는다.
- ④ 화자의 독백 형식이므로 대화를 나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시선의 이동, 시상의 점층적 고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이 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절제하는 한편, 직유법과 영탄법을 통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애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된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② ‘일백 번 고쳐 주저’, ‘백골이 진토 되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솨음 칠’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날(광복)’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슴에 창 내고자’라는 불가능한 설정과, 창을 내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여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4 시의 이미지와 시상 전개

대표 유형으로 확인

025쪽

1. ④ 2. ⑤

1. 이 시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시구를 찾을 수 없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에서 공감각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오답 분석

- ① '가을 강'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고향으로 가는 화자의 공간 이동 양상이 나타나 있다.
- ③ 민요조의 방언형 종결 어미인 '-것네'를 반복 사용하여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저것 봐'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저녁노을에 물든 강에서 느끼는 감동을 나타내고 있다.

2. [D]에서 강물이 시냇물-강의 종류-하류로 흐르는 각 단계를 통해 인생의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생명의 순환이 아닌 인생의 유한성을 보여 주는 한편 화자의 서러움과 한이 심화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을 햇별'은 가을과 해질녘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소멸의 이미지이며,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적 슬픔과 조음하여 눈물 짓게 하고 있다.
- ② '눈물'과 '가을 햇별'은 각각 물과 불의 이미지로 대조되며, 화자의 내면의 슬픔과 조음하고,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시각의 청각화라는 감각의 전이를 통해 화자가 소멸하는 것들에 느끼는 애상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고나', '것네', '보담도' 등 민요적 느낌의 종결 어미를 통해 전통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5 시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대표 유형으로 확인

027쪽

1. ③

1. <전 2장>의 '처음에'와 '중간에'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내면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 2장>의 '젊을 적'과 '날마다'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젊은 시절의 마음 그대로 지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

오답 분석

- ① <전 1장>의 '애달픈사', '서러운지고'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화자가 느낀 슬픔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후 1장>의 '경륜을 내 아더냐', '필부'를 통해 작가가 벼슬을 하지 않은 신분으로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전 3장>의 '어부'와 <후 3장>의 '한가한 사람'을 통해 어부로 살고 있는 현재 화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전 3장>의 초장인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가 중장의 '옳거나 외거나'에 집약되어 있으며, <후 3장>의 초장인 '푸른 산은 높고 높고 흐르는 물은 길고 길고'가 중장의 '산고수장'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028쪽

이 장수산 1/ 모란이 피기까지는

핵심 포인트

① 세속 ② 탈속 ③ 옷절 중 ④ 설움 ⑤ 소망

1. ① 2. ④ 3. ② 4. ⑤

가 정지용, 「장수산 1」

- 갈래: 서정시, 산문시
- 성격: 감각적, 동양적, 은일적
- 주제: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의 세계에 대한 염원
- 특징
 - ① '~이랬거니', '하이' '~고녀' 등 의고적 어투를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느낌을 줌.
 - ② '정정', '찌르렁', '희고녀', '내음새'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함.
 - ③ 영탄적 어조와 의문형을 사용하여 감흥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 ④ 부사(한밤내)로 종결하여 여운을 줌.
- 해제: 이 시는 눈 덮인 장수산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장수산은 인적이 없는 절대 고요의 공간이고, 허적(虛寂)의 공간이며,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옷절 중'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적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내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슬픔과 꿈을 모두 장수산 속의 겨울 한밤의 적막 속에 묻어 버리려고 한다.

나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유미적, 낭만적, 상징적
- 주제: 모란이 피기를 소망하는 인내의 자세
- 특징
 - ① 수미 상관식 구성을 통해 '봄에 대한 기다림 → 봄의 상실 → 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순환 구조를 보임.
 - ② 역설적 표현('찬란한 슬픔의 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④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 구성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3~4행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슬픔
5~10행	모란을 잃은 서러움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해제: 이 시는 '모란'을 소재로 하여 한시적인 아름다움의 소멸을 바라보는 화자의 상실감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한 작품이다. 즉, 보람을 상징하는 모란이 피면 기뻐하고, 모

란이 지면 절망에 빠지면서도 또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전체적으로 '봄에 대한 기다림 - 봄의 상실 - 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꽃이 지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때가 되면 재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곧 삶 자체라는 깨달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봄에 피는 꽃은 겨울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야 개화할 수 있다. 아름다운 꽃이 소망과 보람의 상징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고통과 좌절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꽃의 특성은 어느 면에서 인간의 인생과 공통점을 지닌다. 결국 시인은 '모란'을 통해 인간의 절망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시가 쓰인 때가 일제 강점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Ⅰ 작품 간의 비교 감상 Ⅰ

1. (가)에서는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너!', '달도 보름을 기달러 흰 뜻'에서 흰색을 활용하여 장수산이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고요한 탈속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 분석

- ② (가)에서는 '정정', '찌르렁'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장수산의 고요한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 '뚝뚝'을 통해 모란이 질 때 화자가 느낀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의한 시상 전개를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오오 견디란다'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 다 명령형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나)에는 '피기', '뺨쳐오르던' 등과 같은 상승 이미지와 '떨어져', '잡길', '시들어', '무너졌느니' 등과 같은 하강 이미지의 교차가 나타나지만, (가)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Ⅰ 작품의 종합적 이해 Ⅰ

2.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번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심히 흔들리우노니'로 표현하고 있다. '조잘히 늙은 사나히'는 무욕과 자족의 삶을 살고 있는 '웃절 중'의 모습을 가리킨다.

오답 분석

- ① '별목 정정'은 나무가 베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 순간의 '찌르렁' 소리가 날 만큼 장수산이 무척 고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② 장수산의 '한밤'은 정밀한 고요 속에 보름달이 비치고 하얗게 눈이 덮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순수함이 부각되어 무욕의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③ '웃절 중'은 승부에 연연해 하지 않는 탈속적인 면모를 보이며, 이러한 '웃절 중'의 모습은 탈속적 경지를 상징하는 장수산의 이미지와 통하고 있다.

- ⑤ '울연히'는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화자가 번뇌를 잊고 시름을 담담히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Ⅰ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Ⅰ

3. (나)의 화자는 모란이 지는 것을 보고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오면 모란이 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봄을 기다리겠다는 집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념은 '하냥'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하냥'은 모란이 떨어지고 느끼는 서러움에 대한 표현이다.

오답 분석

-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소망과 좌절의 반복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화자는 모란이 지는 것을 보고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긴다고 하며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④ '삼백예순 날'은 모란이 진 이후 다시 피기까지 필요한 시간으로 화자가 모란이 필 때까지 견뎌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상징한다.
- ⑤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순 형용에 의한 표현으로 기다림과 절망감의 이중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담고 있다.

해설 더하기

모순 형용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 사이에 모순이 일어나는 역설적 표현을 의미한다.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찬란한'은 긍정적인 대상에 사용하는 관형어이다.

Ⅰ 시어의 의미 파악 Ⅰ

4. (가)에서 '겨울'은 고요하고 적막한 계절로 화자로 하여금 세속적 번뇌에서 벗어나 무욕의 삶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나)에서 '봄'은 '모란', '보람'과 동일시되는 시어로 화자의 소망과 염원을 함축한다.

오답 분석

- ① ㉠은 기다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은 이와 관련이 없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과 관련이 없으며, ㉡은 모란이 피었을 때가 화자의 특별한 추억이라 상정한다면 추억을 환기하는 역할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 ③ ㉠ 자체에 화자의 만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은 모란이 피는 때이기 때문에 아쉬움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은 화자로 하여금 번뇌에 빠지도록 하지만 갈등을 반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바람이 불어 / 광야

핵심 포인트 ① 성찰 ② 소극적 ③ 일제 강점기 ④ 반성 ⑤ 광복 ⑥ 터전 ⑦ 의지

1. ⑤ 2. ④ 3. ④

가 운동주, 「바람이 불어」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성찰적
-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성찰함.
- 특징

- ①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자아 성찰의 태도를 드러냄.
- ② '없다'라는 부정 표현을 반복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함.
- ③ 동일한 구문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구성

1~2연	바람으로 인한 괴로움 인식.
3~4연	괴로움의 이유에 대한 의문과 탐색
5~6연	현실과 무관하게 안주하는 삶

- **해제:** 이 시는 화자가 느끼는 괴로움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출발점과 종점을 알 수 없이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4연에서 '시대'를 언급한 것을 통해 이 괴로움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5, 6연에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중에 반석과 언덕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시인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기에 살다 불행한 최후를 마친 운동주의 시에는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불안과 고독, 절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아 성찰을 통해 희망과 용기로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려 한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의 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바람이 불어」 역시 부당한 현실 앞에서 방관자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드러난다.

나 이육사, 「광야」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의지적
-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
- 특징

- 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공간이 갖는 의미와 상황 변화를 드러냄.(까마득한 날 → 지금 → 천고의 뒤)
- ②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눈 ↔ 매화 향기)
- ③ 종결형 어미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단정적, 의지적 어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구성

1연	광야의 원시성
2연	광야의 신성성
3연	역사와 문명의 시작

4연	암담한 상황과 현실 극복 의지
5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 **해제:**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억압받는 우리 민족의 현실 극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태초에 원시적이고 신성한 광야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민족이 삶의 터전을 잡고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가 일제의 침략과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후손들이 광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것임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이육사는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가로도 활약하였다. 1925년에 형제들과 함께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한 이후 독립운동과 관련한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모두 17차례 걸쳐서 옥고를 치렀으며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사망하기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오롯이 시에도 반영되어 일제하의 조국의 현실과 광복에 대한 확신과 이를 위한 투쟁 의지 등을 노래한 작품들이 남겼다.

I 작품의 종합적 이해 I

1. (가)에서는 '없다'라는 부정적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는 '뿌려라', '하리라'에 쓰인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에서, (나)는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가)는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나)는 광야의 원시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는 '씻다'와 같이 과거형 시제가, (나)에도 '못하였으리라', '열었다'와 같이 과거형 시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I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I

2. 1연의 '닭 우는 소리'는 생명의 기척이 없었던 광야의 원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이다. 따라서 '닭 우는 소리'가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4연의 '가난한 노래의 씨'는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1연은 광야의 태동을, 2연은 광야의 신성성을, 3연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
- ② 2연에서 산맥들이 광야를 범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야가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 ③ 3연에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 ⑤ 5연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화자가 바라는 대상으로, 우리

민족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존재를 상징한다.

<보기> 분석

광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상징

↓ 우리 민족의 역사 형상화

광야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의 여정을 보여 줌.

시어의 의미 파악

3. (가)의 화자는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면서 성찰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엄혹한 현실을 '눈 내리'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일제 강점기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①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①은 화자를 힘들게 하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를 절망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는다.
- ③ ①은 화자의 아픈 성찰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괴롭고 힘들게 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①이 화자에게 안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①은 화자의 삶을 성찰하도록 할 뿐, 미래 지향적인 역사 의식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은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지만 화자는 이에 체념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032쪽

03

농무/지상의 방한칸

핵심 포인트 ① 술 ② 신명 ③ 울분(원통함) ④ 가장 ⑤ 자책감 ⑥ 망망천지(지상) ⑦ 궁핍한(가난한)

1. ⑤ 2. ⑤ 3. ④ 4. ③

가) 신경림, 「농무」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사실적, 묘사적, 비판적
- 주제: 농민들의 한과 고뇌 어린 삶

특징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사적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짐.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표출함.
- ③ 직설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구성

1~6행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시며 원통해 함.
7~10행	장거리에서 농악을 울림.
11~16행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자포자기함.
17~20행	점점 신명이 나 농무를 춤.

• **해제:** 이 시는 1970년대 농민시의 대표작으로 피폐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울분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땀 빈 운동장',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비롯값도 안 나오는 농사' 등은 농민의 소외감과 울분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상황 설정이다. 한편,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가 느끼는 자조와 한탄이 '신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흥겨움의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저항과 울분,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다. 뿌리 깊은 좌절감과 울분을 '신명이 난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1960~70년대의 한국 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했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던 정부는 공업화·산업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농촌은 한국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저곡가 정책에 따라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농작물을 팔아야 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한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의 주변부에서 빈민층을 형성하거나 싼값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나) 김사인, 「지상의 방한칸」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자조적, 애상적
- 주제: 가난으로 인한 가장의 무력감과 비애

특징

- ①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
- ② 수미 상관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애환을 강조함.
- ③ 가족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을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냄.

구성

1~3행	중압감으로 잠을 못 이룸.
4~8행	자는 자식을 보며 연민과 자책감을 느낌.
9~14행	방한 칸조차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한탄
15~18행	막막한 현실로 인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룸.

• **해제:** 이 시는 가난한 소설가의 삶을 담아낸 박영한의 소설 「지상의 방한칸」에서 제목을 빌려 온 작품으로, 글을 쓰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 가족과 지낼 방한칸을 구하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잠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자책하고 한탄하는 화자의 비애와 가난한 삶으로 인한 비극이 잘 표현되어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이 시는 군사 정권 시대에 시인이 펴낸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1987)에 실린 작품이다. 시인은 서술이 시퍼렇던 독재 시대에 반독재 투쟁에 나서 구속되기도 하고, 1980년대에는 노동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부당한 정권에 맞서 싸우며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자전적인 생활사가 이 작품 속에 애절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상의 특징 비교

1. (가)에서는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나)에서는 '초라한 몸 가릴~망망천지에 엇단 말이냐'라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탄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와 (나) 모두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을 뿐 명암의 대비라고 할 만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와 (나) 모두 유사한 시구의 점층적 확장에 해당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가)에서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에서 반어적 표현을 통한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1인칭 복수 화자인 '우리'를 내세워 공동체의 문제를 보여 주고자 했지만, (나)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해설 더하기

점층적 확장
 내용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는 표현 방법.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시구를 배열하기도 한다. 이 표현 방법은 화자의 감흥을 고조시켜 절정에 도달하게 만든다.
 예) 눈은 살아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I 시적 공간 파악 I

2. (나)의 화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 한 칸'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만, 가족과의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텅 빈 운동장'은 갈수록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 공동화(마땅이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짐, 또는 속이 텅 비게 됨.)되어 가는 농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② '장거리'에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고 '쫓무래기들'만 있는 상황은 농촌이 점차 비어가는 공동화 문제와 관련이 깊다.
- ③ '산 구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자조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다.
- ④ '방 한 칸'은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활 터전을 의미한다.

I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I

3. <보기>의 상황에서 (가)의 화자의 처지와 태도를 고려할 때, 화자가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점점 신명이 난다'는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뇌와 울분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소숫집에서 술을 마시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한 점에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농무는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것인데도 이 시에서 제시된 상황은 농무의 흥겨움과는 거리가 멀다.
- ③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1970년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실상을 짐작하게 한다.
- ⑤ 농촌의 암담한 현실에서 화자가 느끼는 불만과 울분이 농무의

몸짓으로 표출되고 있다.

I 작품 간의 비교 감상 I

4. <보기>의 '미소하는 내 얼굴'은 가장으로서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자식을 위하여 험난한 세파를 견디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나)의 '달아오른 불덩어리'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답답한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한다.

오답 분석

- ① <보기>의 화자는 '시인'으로 드러나 있으며, (나)의 화자는 '원고지 매꿔 밥 비는'으로 제시된 것을 통해 글을 쓰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보기>의 '눈과 얼음의 길'과 (나)의 '바람 소리'는 가장으로서 느끼는 고달프고 힘겨운 현실을 상징한다.
- ④ <보기>와 (나)의 화자 모두 자식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보기>에서 화자가 자신을 '어설픈 것'이라 지칭하고, (나)에서 화자가 자신을 '초라한 몸'이라고 지칭한 것에는 모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운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 분석

박목월, 「가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가난한 시인의 가정
주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장으로서 책무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책무감을 '십구 문 반'의 신발로 시각화하여 표현함. •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어로 가정의 책임감과 가족애를 표현함. • 시인이자 가장으로 살아가는 고달픈 현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함.

04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버팀목에 대하여

핵심 포인트 ① 편견 ② 조화 ③ 관계 형성(소통) ④ 사라진 이웃들 ⑤ 희생

1. ④ 2. ⑤ 3. ① 4. ②

가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반성적, 고백적, 비유적
- 주제: 타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조화를 이루는 삶
- 특징
 - ①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 ② 지시어(「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주의 집중을 유도함.
 - ③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냄.
 - ④ 도치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줌.

• 구성

1연 1~6행	대상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까이 가지 않음.
1연 7~12행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함.
2연	대상과의 성숙한 만남과 교감

• **해제:** 이 시는 화자가 '그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드러낸 작품이다. 복숭아나무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거리감을 느꼈던 화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 시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단순히 자연물의 하나를 가리키지 않고 타인을 상징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가 타인의 진면모를 깨달으며 화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에 대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서사적, 고백적, 유추적
- **주제:**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
- **특징**
 - ① 비교적 평이한 시어로 시상을 전개함.
 - ② 사물의 특징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유추함.(나무의 모습에서 삶의 모습으로 시상을 확장함.)
 -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를 형성함.

• 구성

1연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움.
2연	싹을 틔우고 잔뿌리를 내리는 나무
3연	제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버팀목
4연	버팀목 없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
5연	화자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와 이웃들
6연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 **해제:** 이 시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버팀목을 통해 느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운다. 이를 통해 '죽은 나무'인 버팀목이 '산 나무'인 쓰러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 주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화자는 이를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웃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과 자신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인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Ⅰ 표현상의 특징 비교 Ⅰ

1. (가)와 (나) 모두 '않았습니다', '뿐입니다', '섰습니다', '내립니다' 등과 같이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의 제재인 '그 복숭아나무'는 화자가 이해하고 교감하려는 대상이지 화자와 동일시하는 대상은 아니다. (나)의 제재인 '버

팀목'은 오늘날 화자를 있게 한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과 동일시된다.

- ② 도치법으로 시상을 마무리한 것은 (가)에만 해당하며, (가)에서 도치법을 통해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③ (가)와 (나)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이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가)에서는 '흰꽃', '분홍꽃'과 같은 색채어가 쓰였지만, (나)에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았다.

Ⅰ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Ⅰ

2. [C]에서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은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표현이다. [C]에서는 복숭아나무와의 조화와 교감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A]에서 화자는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운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상을 멀리한다.
- ② [A]에서 복숭아나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는 멀리 지나치는 행위로 드러난다.
- ③ [B]에서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은 '눈부셔'의 반복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여러 겹의 마음'을 이중적 태도로 보고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B]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Ⅰ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Ⅰ

3. (가)의 화자는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대상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멀리서 그 대상을 보고 대상이 지닌 본질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대상에 가까이 가지 않아 선입견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② (가)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는 대상과의 진정한 이해와 어울림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 ③ (나)의 화자는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과 같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음을 깨닫고 있다.
- ④ (나)에서 '버팀목'은 자신이 '삭아 없어지'면서까지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 ⑤ (나)의 화자는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 가려 하고 있다.

◻ <보기> 분석 ◻

(가)와 (나)의 화자

	공통점	차이점
(가)	대상이 지닌 특성을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다.	복숭아 나무를 통해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과 조화를 추구하려 한다.
(나)		버팀목과 유사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Ⅰ 시어의 의미 비교 Ⅰ

4. ㉠은 '그 복숭아나무'가 외로운 줄도 모르고 피우고 싶어하는 대상이므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썩'을 띄우고, 이어서 피어나는 것이 기 때문에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5 단가육장/병산육곡

핵심 포인트 ① 효제충신 ② 충정 ③ 명월 ④ 임금 ⑤ 소박한 ⑥ 무릉 ⑦ 모재 ⑧ 두견

1. ③ 2. ⑤ 3. ①

가 이신의, 「단가육장」

- 갈래: 연시조, 유배가, 연군가
- 성격: 상징적, 유교적, 우의적
- 주제: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 특징
 - 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② 종장의 '하노라'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을 형성함.
 - ③ 귀양살이의 고달픔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냄.

• 구성

1장	장부의 할 일에 대한 천명
2장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정계 복귀에 대한 희망
3장	귀양살이의 처량한 신세 한탄
4장	적객의 외로움과 우국지정
5장	귀양길에서 바라본 달의 정취
6장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 **해제:** 이 시는 임금에게 항소를 올렸다가 귀양살이를 하게 된 화자가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비애를 노래한 연시조이다. 1장에서는 효제충신을 내세워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조정에 바른말을 하는 충신이 모두 숙청당한 정치적 상황을 상징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3~6장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답답하고 외로운 처지에 대한 하소연과 정계 복귀에 대한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이신의는 1617년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유폐하지는 의론을 제기하자 이에 반대하는 항소를 올렸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함경도 회령으로 유배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오랑캐의 침입 소식이 알려져 흉양으로 이배되었다. 이곳에서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기까지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 시에서 작가는 6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시작된 귀양살이에서 오는 고달픔과 귀양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으로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권구, 「병산육곡」

- 갈래: 연시조, 강호한정가
- 성격: 자연 친화적, 상징적
- 주제: 자연에서 안분지족하고자 하는 삶
- 특징
 - ① 대비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드러냄.

- ② 시적 대상(두견, 백조)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냄.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함.

• 구성

제1곡	세속을 멀리하는 삶
제2곡	자연과 벗하며 더불어 사는 삶
제3곡	자연에서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
제4곡	혼탁한 현실에 대한 탄식
제5곡	혼탁한 현실에 대한 염려
제6곡	자연 속에서 사는 만족감

• **해제:** 이 시는 경상북도 안동의 병산(屏山)을 배경으로 한, 전 6수의 연시조이다. '백구로 벗을 삼아'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세간 소식'을 멀리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일반적인 강호한정가와 달리 '두견이', '외로운 봉황' 등 현실적인 미련과 집착을 보이는 모습도 나타나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작가 권구는 영남 문인들의 몰락 사건을 경험하면서 일찍이 과거를 단념하고 평생을 향리에 머물며 학문에만 몰두했던 전형적인 처사 문인이다. 자신이 사모했던 유성룡의 병산서원 인근에서 살았는데, 마을 이름을 병곡(屏谷)으로 바꾸고 이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 권구의 학문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그가 병산서원에 머물렀던 기간으로 알려졌다. 「병산육곡」은 그의 유일한 시조 작품으로, 역시 병산에 머물던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병산육곡」에는 학문에 전념하면서 자연 친화의 삶을 살다 일생을 마친 그의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I 표현상의 특징 비교 I

1. (가)의 4장에서는 '적객' 신세인 화자가 '제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름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제4곡에서는 화자가 '두견'과 '백조'에게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에서는 2장에서 '우로 곧 깊으면'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통해 정계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곤궁한 현재의 처지를 더욱 강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적 공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가)와 (나)에는 계절적 소재가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I 시어의 의미 파악 I

2. (나)의 '편편 고봉'은 혼탁한 현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화자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오답 분석

- ① ㉠은 자유롭게 나는 대상으로, 유배지에 갇혀 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처지를 상기도록 한다.
- ② ㉡은 화자가 자신의 지조와 충절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임금

을 가리킨다.

- ③ ㉠은 화자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자연을 대표하는 대상이다.
- ④ ㉡은 세속적 이해를 다루며 현실을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들을 가리킨다.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3. (가)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유배지에서 적막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귀양지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경이 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윤리 질서를 주로 노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형태적으로 6수로 이루어져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우국지정을 토로한다는 점에서 육가계 연시조로 보아야 한다.

오답 분석

- ② (나)에는 주로 강호 한정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제4곡과 제5곡에서는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야기된 해소되지 않은 불만이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형태적인 특성으로 볼 때 육가계 연시조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지만, (가)의 화자는 자신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유배지에서 적객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2장에, (나)에서는 제4곡과 제5곡에 혼탁한 정치 현실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쓰였다.

<보기> 분석

연시조의 구분	조선 중기 이후 연시조는 그 내용과 연의 개수에 따라 사시가계, 오윤가계, 육가계로 나뉜다.
육가계 연시조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가계 연시조는 다른 연시조와 다르게 대체로 강호에 은거하는 태도를 노래하였다. • 일부 작품에서는 당시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야기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041쪽

06 두터비 푸리를 물고~/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 핵심 포인트 ① 의인화 ② 비판 ③ 풍자 ④ 탐관오리(부패한 양반) ⑤ 힘없는 백성 ⑥ 중앙 관리(외세) ⑦ 창 ⑧ 답답한 ⑨ 열거

1. ③ 2. ① 3. ⑤ 4. ③

가 작자 미상, '두터비 푸리를 물고 ~'

- 갈래: 사실시조
- 성격: 풍자적, 우의적
- 주제: 탐관오리(양반)의 횡포와 허장성세 풍자
- 특징: 의인법, 상징법, 풍자적 아이러니 등의 표현법이 사용되어 대상(두꺼비)을 희화화함.
- 구성

초장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간 두꺼비의 모습
중장	흰 송골매를 보고 펄쩍 뛰었다가 자빠진 두꺼비

중장 자화자찬하는 두꺼비의 자기 독백

• 해제: 이 시는 약육강식하는 인간 사회의 세태를 두꺼비, 파리, 매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여 비판하고 있는 시조이다. 당시 시 대상으로 견주어 본다면 '푸리'는 최하층의 수탈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며, '두터비'는 백성을 괴롭히는 부패한 하급 관리나 지방 관리를, '백송골'은 그보다 높은 상급 관리나 감찰을 담당한 중앙 관리, 외세를 상징한다. 여기서 '두터비'는 지배 계급으로 서민 위에 군림하지만 자신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꺾 못하고 비굴하게 달아나는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극적으로 희화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웃음으로 이겨내려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나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 갈래: 사실시조
- 성격: 해학적, 의지적
- 주제: 마음 속에 쌓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 특징
 - ①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이 드러남.
 - ② 슬픔과 고통을 어렵게 그리지 않고,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임.
- 구성

초장	창을 내고 싶은 소망
중장	장지문의 종류와 부속품 나열
종장	창을 여닫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

• 해제: 이 시는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과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시조이다. 답답한 가슴을 꼭 막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창을 만들어 열고 닫음으로써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시적 발상이 매우 참신하다. 비애와 고통을 눈물로 하소연하기보다는 기발한 착상으로 풀어내는 조상들의 해학과 재치가 돋보인다.

표현상의 특징 비교

1. (나)에서는 '마음'이라는 추상적 개념(감각적으로 지각하기 힘든 것)을 '방', '창문' 등의 물질로 변환시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가)는 추상적 개념을 물질로 변환시켜 표현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 개념을 물질로 변환시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가)는 '풀떡', (나)는 '독닥'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불러넣고 있다.
- ② (가)는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문학적 장치인 우의적 수법이 쓰였다. (나)에는 우의적 수법이 쓰이지 않았다.
- ④ (나)는 '창 내고자'라는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가)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시구가 없다.
- ⑤ (가)는 중장에서의 행동(자빠지는 행동)에 대해 종장에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 (나)는 중장에서의 행동('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의 이유를 종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 더하기

우의적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문학의 표현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은유는 시의 어느 한 부분에서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면, 우의는 작품 전체적인 부분에 은유가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 간의 관계 I

2. ㉠은 부패한 탐관오리(양반)를, ㉡은 수탈당하는 백성을, ㉢은 중앙 관리 또는 외세를 의미한다. ㉠은 ㉡을 수탈(‘포리를 물고’)하지만 ㉢을 두려워하고(‘가슴이 금죽혀’) 있다. 이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계급 사회의 수탈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② ㉠은 ㉡을 두려워 하며, 경쟁에서 이긴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 ③ ㉠에게 ㉢은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슴이 금죽혀’)이므로 상호 협력하고 있는 관계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 ④ ㉡이 ㉢과의 경쟁에서 질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으며, ㉠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는다.
- ⑤ ㉡이 ㉠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을 적대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는다.

시어의 의미 파악 I

3. (나)에서 ‘창’은 화자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비유한 표현이다. 따라서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을 해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④ 화자가 겪는 심리적·현실적 어려움의 ‘원인’이나 ‘깨달음’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③ 타인과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나 자아성찰의 매개체와는 관련이 없다.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 I

4. (가)와 (나) 모두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부러 아는 체하려고 쓰이는 ‘현학적 표현’은 두 작품 모두 쓰이지 않았다.

오답 분석

- ①, ②, ④ 두 작품 모두 웃음의 미학(희화화, 익살)을 지니고 있다. 대신에 (가)는 희화화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풍자’의 성격, (나)는 희화화를 통해 연민의 정서를 느끼게끔 하는 ‘해학’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두 작품 모두 증상이 장형화된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 분석

사설시조의 특징

- 초·중장 혹은 그 중 어느 일부가 장형화됨.
- 해학과 풍자가 주된 내용임.
-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고 사물을 나열하는 표현 방법이 사용됨.
- 고달픈 삶의 세태를 표현하거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등 서민적 특성을 보여 줌.

01 관동별곡

- 핵심 포인트 ① 개심대 ② 화룡소 ③ 불정대 ④ 갈등 ⑤ 삼일우 ⑥ 한강의 목벽

1. ④ 2. ③ 3. ⑤ 4. ③

정철, 「관동별곡」

- 갈래: 양반 가사, 기행 가사, 정격 가사
- 성격: 서경적, 지사적, 서정적
-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유교적 충의 사상
- 특징
 - ① 영탄법, 대구법, 생략법 등을 활용한 활기 넘치는 문장을 사용함.
 - ②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뛰어난 언어적 표현이 많음.
- 구성

구성	주요 내용	여정
서사	관찰사 부임과 관내 순력	전라도 창평 → 한양 → 평구(양주)역 → 흑슈(여주) → 섬강·티악(원주) → 소양강(춘천) → 동주(철원) → 회양
본사 1	내금강 유람	만폭동의 금강대 → 진혈대 → 개심대 → 화룡소 → 십이폭포
본사 2	관동 팔경과 동해안 유람	동해 → 총석정 → 삼일포 → 의상대 → 경포 → 죽서루 → 망양정
결사	동해의 달맞이와 풍류	① 동해의 달맞이 ② 꿈속에서 신선을 만남.

• 해제: 송강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외·해 금강과 관동팔경 등의 절승을 두루 유람한 후 그 여정과 산수·풍경·고사·풍속 및 자신의 소감 등을 읊은 작품이다. 음률이 주로 3·4조로 이루어진 이 가사의 용어는 순수한 우리말이 많고, 비록 한문 어휘라 하더라도 대개 우리말을 순화한 것들이다. 전체의 분위기가 웅장하고 명쾌하여 화려체의 문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생략, 대유를 통한 비약적인 전개, 역동적인 움직임의 포착에 의한 박진감 있는 경치의 묘사가 특징적이다. 본문에 실린 부분은 (가)는 본사 1과 본사 2의 일부분을, (나)는 본사 2의 일부분을 실었다. 송강 정철은 조선 후기 정쟁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던 도학자이자 현실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평생 술을 벗하며 신선처럼 뼈어난 문장으로 자연과 인생을 노래했던 시인이기도 하였다. 즉 그는 유교의 교조적 이념과 풍류라는 상반된 흐름이 공존했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이중성은 「관동별곡」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화자는 산에서는 신하로서의 직분이나 관리로서의 의무감을 저버리지 않는데 반해, 바다에서는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곧고 변함없는 산에서는 그 덕성을 본받으려 한 것이고,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에서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펼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파악 I

1. 설의적 표현이란 말하고자 하는 바(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표현을 의미한다. ㉡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설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좌우 대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만 이천봉'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어와'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천년 노룡'은 '화룡소'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블거니', '썰거니', '어즈러이' 움직이는 파도의 모습을 고래에 비유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 I

2. 화자는 '저 (공자의) 경지를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오르지 못하거나 내려감이 이상할까'라고 이야기한다. 즉, 자신은 공자와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를 작다고 여기는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로봉처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비로봉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 ② 공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 ④ 화자는 높은 경지에 대해 감탄하고 있으나 두려움을 보이지는 않는다.
- ⑤ 화자는 공자보다 자신의 정신적 경지가 더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어와, 더 디위룰 어이흐면 알 거이고')

<보기> 분석

맹자의 공자에 관한 고사

『맹자』에 따르면 공자는 동산에 올라가 노나라가 작다고 느꼈으며, 태산에 올라가 천하가 작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는 천하가 작다고 느낄 정도로 공자의 배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자의 높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보여 주는 고사이다. 정철은 이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비로봉'을 보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한편, 비로봉에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

작품 내용의 이해 I

3. '망양정'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을 '은산'에 비유한 것은 맞으나, '백설'은 파도의 물보라를 비유하는 표현이지, 실제 '눈'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5월'이다.

오답 분석

- ① '만 이천봉'의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 화자의 우국지정(나랏일을 근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이온 풀'은 삶이 고달픈 백성을, '삼일우'는 관찰사로서의 자신을 비유한 단어로,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하수'는 '불경대'에서 바라본 십이폭포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표현이며, '여산'의 폭포와 대적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다.
- ④ '한강'과 '목멱'(현재의 남산)은 모두 한양에 있는 소재이므로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임금이 계신 곳에 아름다운 태백산 그림자를 보내고 싶다는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볼 수 있다.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I

4. [B]는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자아('왕정이 유한하고')와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은 개인적 자아('풍경이 못 슬피니')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화자는 관원으로서 정해진 여정만을 수행해야 하지만 신선이 타는 뗏목을 타고 북두칠성, 견우성에 갈까, 신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를까 고민하면서 자연 속에 머무르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② '왕정이 유한하고'를 볼 때 화자는 주어진 임무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관찰사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그만두고자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 ⑤ 화자는 주어진 임무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 임무를 끝낸 후 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08

농가월령가

- 핵심 포인트**
- ① 입춘, 우수 ② 농사 ③ 농사일 ④ 백로, 추분
 - ⑤ 귀뚜라미 ⑥ 보람 ⑦ 재거름 ⑧ 보리밭
 - ⑨ 목화

1. ④ 2. ① 3. ①

정확유, 「농가월령가」

- 갈래: 월령체 가사(전 13장)
- 성격: 교훈적, 계몽적
- 주제: 각 달과 절기에 따른 농사일과 세시 풍속의 소개
- 특징
 - ① 월령가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작품임.
 - ②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휘를 통해 농사일과 세시 풍속을 소개함.
 - ③ 실제적인 농사일을 열거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함.

구성

서사	일월성신의 운행과 역대의 월령 및 당대의 역법
정월령 ~12월령	• 각 월의 절기와 해야 할 농사일, 세시 풍속 • 12월령의 결사에서 농업에 힘쓰기를 권장

- 해제: 이 시는 농가에서 일 년 동안 해야 할 일과 철마다 다가오는 세시 풍속, 그리고 계절에 따라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달에 따라 읊은 월령체의 교훈 가사이다. 서사에서 시작하여 1월에서 12월까지 전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달의 절기 소개 → 그 달에 대한 작가의 정서 → 농사일 → 세시 풍속의 의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에 실린 부분은 (가) '정월령'의 일부분, (나) '팔월령'의 일부분으로 세시 풍속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실지 않았다.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향

촌 사회의 동요는 향촌 사대부들에게 위기로 다가왔다. 그래서 향촌 사대부들은 향촌 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교훈 기사들을 짓기 시작했고 그때 주로 명령형의 어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당위(當爲)만으로 동요하는 향민들을 바로잡기 힘들었고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에 그들과 심정적으로 공감하고자 한 어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탄형 어법이다.

▶ 표현상의 특징 비교 ▶

1. 이 글은 양반 신분의 화자가 농부에게 각 절기마다 해야 할 일을 설명하며 이를 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농부를 계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령형 어미(구지 마라, 장만호소)를 사용하고 있다.

▶ 오답 분석

- ① (가)에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한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귀쫄람이 말근 쇼릿’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대구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쓰였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부정적인 행동을 경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없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근경에서 원경이나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상 전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 해설 더하기

▶ 명령형 어미

동사나 보조 동사의 어간에 붙어 명령이나 요구의 뜻을 나타내는 활용 어미. ‘-아라(어라)’, ‘-게’, ‘-오’, ‘-니시오’ 따위가 있다.

▶ 시구의 의미 파악 ▶

2. ㉠의 ‘성상’은 임금의 의미이며, 임금이 반포한 농사일에 대한 교서를 농부들이 어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행한 일을 예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오답 분석

- ② ㉡의 화자는 일 년 농사가 봄에 달려있으니 이 때 해야 할 일을 해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고마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의 화자는 늙은 사람은 힘든 일은 못 해도 ‘이영 녀고’, ‘쇠기 쏘’기를 권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이나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곡식이 잘 여물어 있는 들판을 보며 그동안 힘든 농사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다.
- ⑤ ㉤은 아이들 또한 뒷동산 밤, 대추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표현이므로, 아이들의 고단한 노동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작품 간의 비교 감상 ▶

3. <보기>의 ‘청산’과 ‘유수’로 대표되는 자연은 화자가 생각하는 인간이 살아야 할 바람직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재이다. 반면, (가)와 (나)에 나타난 자연은 농사일이 진행되는 구체적 노동의 현장이다.

▶ 오답 분석

- ② (가)와 (나)의 자연은 관념적 세계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자연이다.
- ③ (가)와 (나)의 자연은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④ <보기>의 자연은 화자가 닦고자 하는 대상이지, 해당 공간에서 안분지족의 삶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보기>와 (가)와 (나)의 자연 모두 자연의 흥취를 즐기고 있는 부분은 나와있지 않다.

▶ <보기> 분석

이항, 「도산십이곡」

갈래	연시조(전12수)
성격	교훈적, 회고적
주제	자연 친화적 추구하고 학문 수양에 대한 끝없는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부(언지)와 후반부(인학)로 나누어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와 학문 수양의 의지를 표현함. • 동일한 구문의 반복과 유성음의 사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II 소설 문학

소설 문학 필수 개념

1 소설의 언어

대표 유형으로 확인

051쪽

1. ⑤ 2. ②

1. 강 노인에게 땅은 지켜야 할 대상인 반면, 자식들에게는 팔아서 빚을 갚아 줄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강 노인이 땅을 자식들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보기는 어렵다.

오답 분석

- ① 대부분의 땅을 처분하여 그 돈을 허무하게 써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해마다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땅은 팔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강 노인의 태도에서 마지막까지 땅을 지켜 내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 덕에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땅을 생명을 가꾸고 유지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강 노인의 의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은혜 엄마는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더 큰 돈을 떼이게 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의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점입가경(漸入佳境):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볼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 ⑤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 소설의 인물

대표 유형으로 확인

053쪽

1. ⑤ 2. ④

1.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 말에 친일파로 행세하며 부자로 살다가 해방 후 소련군의 감옥에 갇혀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은 이인국이 일제 강점기 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되돌아보며 느끼는 감정으로, 그가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이인국은 친일파로서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식민지 백성이 별수 있었겠어.'라고 하며,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류에 편승하려는 이인국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분석

- 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일 행위로 인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인국의 걱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② 감옥 밖의 가을 하늘을 보며 과거를 회상한 후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진 것이다.
- ③ 이인국은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 그리고 자신이 명예롭게 생각했던 사회적 위치를 떠올리며 목구멍이 딱 막히는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볼 때 그는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브라운은 이인국의 의술을 인정하여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 청자라는 뇌물을 받고 그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3 소설의 배경과 갈등

대표 유형으로 확인

055쪽

1. ②

1. [A]에서 진실한 모범 농사꾼인 응오는 흉작으로 벼를 베어 봤자 빚도 다 못 갚을 상황이기 때문에 벼를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나 [B]에서 자신이 가꾼 벼를 남몰래 훔치고 있다. 벼를 수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빚쟁이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응오가 벼를 훔치는 사건인 [B]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벼를 수확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상황인 [A]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농민이 빚을 지고 도둑이 되는 당시 농촌의 궁핍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답 분석

- ㄴ. [A]에서 나타난 갈등이 해소되려면 [B]에서 소작료나 밀린 빚이 다 해결되는 상황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응오는 자신의 벼를 훔치는 처지에 이르고 있으므로 [B]에서 [A]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ㄷ. 표면적으로 응오는 [A]에서는 빚쟁이, [B]는 응철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A]와 [B] 모두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소작료나 밀린 빚으로 다 빼앗기고 정작 자신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4 소설의 구성과 시점

대표 유형으로 확인

057쪽

1. ①

1.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물의 내면 심리는 인물의 표정이나 말,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유 한림과 두 부인, 유 한림과 교 씨의 대화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등 사건의 흐름이 역전되는 대목은 나타나지 않고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④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
- ⑤ 간악한 첩 교 씨와 현모양처인 사 씨의 처첩 간 갈등 내용을 통해 작가가 생각하는 축첩 제도의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설 더하기

「사씨남정기」는 서포 김만중이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세우는 것에 반대하다 유배를 가며 쓴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상징성이 뚜렷하여, 사 씨는 인현 왕후, 유 한림은 숙종, 간악한 교 씨는 희빈 장씨에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5 소설의 수용과 변용

대표 유형으로 확인

059쪽

1. ③

1. <보기>에는 이 글이 우리나라에 돈이 보급되기 전에 창작되었다는 것, 전국적인 화폐 유통이 현물 거래의 불편을 덜어 주고 국가 재정의 궁핍을 해결한다는 것, 당시에 함량 미달인 동전이 주조되어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에 돈이 유통되었다는 것만으로 당시 사회가 권력보다 돈을 중요시하던 사회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 분석

- ① 돈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도 전에 「공방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작가가 경험이 아닌 관념적인 추측으로 돈의 폐해를 예상하고 이 글을 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은 작가의 예상이라는 관념이 낳은 결과물로 볼 수 있다.
- ② 작가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얽매어 물질적 가치만을 우선하게 될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작가는 돈 자체의 폐해보다 돈에 휘둘리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작가의 지적처럼 결국 돈이 위조 화폐 주조와 같은 폐단을 낳은 것으로 볼 때, 작가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농부 정도롱

핵심 포인트

- ① 일제 강점기
- ② 용쇠
- ③ 김 주사
- ④ 불의
- ⑤ 지주
- ⑥ 올바른 삶의 방향

1. ③ 2. ③ 3. ④

이기영, 「농부 정도롱」

-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계몽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일제 강점기, 한여름 / 공간적-어느 시골
- 주제: 지주의 횡포로 인한 소작인들의 삶의 고통 / 불의에 맞서며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는 삶의 의미
- 특징

- ①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함.
- ②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작가의 주제 의식을 제시함.
- ③ 농촌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냄.

•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지주의 부당한 행위와 이로 인해 핍박받던 궁핍한 소작농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이,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몽적인 태도를 보인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우리나라의 소작제>

우리나라에서 소작제가 시행된 것은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측하고 있다.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작제는 일제 강점기에도 지속되었다. 일제는 1910년 토지조사 사업으로 특별한 문서 없이 관습적으로 대를 이어 경작하던 농민들의 땅을 무상으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작농들의 경작권, 도지권, 개간권, 입회권의 모든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던 우리 민중의 궁핍을 가속시키는 한편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서술상의 특징과 사건의 전개 방식 파악

1. 이 글은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지 않는 3인칭 시점이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오답 분석

- ①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한다는 것은 1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⑤ 현재형과 과거형의 문장이 혼재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한다는 것은 액자식 구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 글에서는 액자식 구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해설 더하기

서술 시점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의 태도	작품 안	작품 밖
인물의 생각 제시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객관적으로 관찰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I 인물에 대한 이해 I

2. 정도룡은 넷째 딸을 때리는 용쇠의 행동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라며 혼계를 하고, 용쇠는 그 소리에 분함을 느끼면서도 정도룡이 두려워 참고 듣는다.

오답 분석

- ① 정도룡은 용쇠에게 짐승인 어머니 제비를 배우라며, 자식을 사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함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즉 정도룡이 용쇠를 혼계한 것은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도룡의 성격 때문이지, 동리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② 용쇠는 정도룡이 자기를 모욕한다고 생각하여 속으로는 분해하지만 그대로 참았을 뿐, 정도룡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 ④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김 주사는 춘이네가 소작하던 논을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긴다. 따라서 춘이 조모가 김 주사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소작하던 땅을 떼이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정도룡이 춘이네에 대해 김 주사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정도룡이 춘이네의 비극을 보고 벽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고 있으므로 그가 용쇠의 행동을 옹호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I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I

3. '갑쟁이들은 우물쭈물 ~ 사리려 든다.'에서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외면하는 동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약자들의 편에서 상대적 강자의 횡포를 규탄하는 행동을 통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도룡의 태도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보릿고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나중의 식량이 될 보리를 익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먹는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 농촌의 궁핍한 삶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춘이네가 소작하던 논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동을 통해 소작농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김 주사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돌려세워 춘이 조모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정도룡의 모습에서 그의 실천적 노력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2 너와 나만의 시간

핵심 포인트 ① 의지 ② 권총 ③ 희망 ④ 인가

1. ⑤ 2. ② 3. ⑤ 4. ③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갈래: 단편 소설, 실존주의 소설, 전후 소설
- 성격: 사실적, 휴머니즘적, 상징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6·25 전쟁 중, 한여름 / 공간적-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
-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의지
- 특징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간결한 문체로 묘사함.
 - ② 우화적인 장면을 통해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 구성

발단	현 중위와 김 일등병이 부상당한 주 대위를 부축하며 남쪽으로 이동함.
전개	이동에 방해되는 주 대위가 죽기를 바라던 현 중위는 혼자 길을 떠남.
위기	현 중위가 떠나고 얼마 후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함.
절정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하며 인가로 유도함.
결말	김 일등병을 인가까지 인도한 뒤 주 대위는 의식을 잃음.

- 해제: 이 글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병사의 심리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이 글의 등장인물은 부상을 입은 자신이 부하들에게 짐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주 대위, 그런 주 대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동행하는 김 일등병, 그리고 혼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가 죽음을 맞는 현 중위, 이렇게 세 사람이다. 작가는 이들의 행동과 심리를 감각적이고 간결한 문체로 묘사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인간애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어 냄으로써 전쟁의 의미를 깊이 통찰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황순원 소설의 휴머니즘 성향〉

황순원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 체험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간들의 문제에 관심이 놓여 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전쟁 상황에서 피어나는 인간다움과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 등의 휴머니즘 정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 세계가 울곧게 지향해 온 것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휴머니즘 정신임은 비인간화와 죽음이 일상화되는 전쟁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은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작가적 정신과 전쟁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I 서술상의 특징 파악 I

1. 이 글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이 김 일등병에서 주 대위, 주 대위에서 김 일등병으로 교체되면서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작

중 상황과 인물의 심리가 진술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이 글에서 서술자가 교체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이 글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주관적 판단을 전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서술은 1인칭 시점에서 가능하다.
-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소설 밖의 제3자이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④ 이 글은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외적 준거를 통한 소재의 의미 파악

2. 이 글에서 ㉠(‘벼랑’)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들을 버리고 떠난 현 중위가 떨어져 죽은 공간으로, 인물이 전쟁 중에 경험한 실존적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김 일등병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오답 분석

- ① ㉠(‘사십 리’)은 아군의 대포 소리가 나는 곳까지의 거리로, 아군이 주 대위를 업고 가기에는 너무 멀리에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리이다. 그로 인해 김 일등병은 다시금 절망에 빠지게 되므로, ㉠은 김 일등병이 느끼는 절망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③, ⑤ 아군의 뿔소리가 너무 멀다는 절망적인 판단으로 인해 김 일등병이라도 살리고자 자결하려던 주 대위는 뿔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개 짚는 소리’)을 통해 인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갖게 된 생존에 대한 희망으로 김 일등병에게 ㉢(‘권총’)을 들이밀며 억지로라도 걷게 만든다. 따라서 ㉢은 주 대위가 지니게 되는 희망의 근거이며, 주 대위가 김 일등병까지 살리기 위해 그를 겁박하는 수단인 ㉢은 인간에 실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④ 김 일등병은 자신들이 여기서 죽고 나면 더 많은 ㉣(‘까마귀 떼’)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 일등병에게 있어서 ㉢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죽음의 이미지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 파악

3. ㉢은 주 대위가 개 짚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김 일등병이 의심하는 내용이다. 자신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자신의 귀 뒤에 대고 있는 권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 걷고 있다. 따라서 ㉢을 통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주 대위를 버리지 않으려는 김 일등병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②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말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에서 주 대위는 자신이 짐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와 같이 김 일등병마저 자신을 데리고 가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주 대위가 ㉣와 같이 말한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주 대위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에서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며,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다고 했으므로, 이를 통해 주 대위가 자신과 김 일등병의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작품과의 비교

4. 이 글에서 주 대위는 자신의 기민한 감각과 결단력을 통해 김 일등병을 인가로 이끌었으며, 김 일등병은 부상당한 주 대위를 업고 인가까지 이동하였다. <보기>의 만도와 진수는 각각 팔과 다리 한쪽을 잃은 상태로, 서로를 도와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다. 따라서 모두 상대방에게는 없는 자신만이 가진 능력으로 서로를 돕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이 글에서 김 일등병은 자신을 희생하여 부상당한 주 대위를 업고 있으나, <보기>의 만도와 진수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글과 <보기>의 등장인물들이 자연의 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보기>의 만도와 진수는 부자 관계로, 불행한 운명을 아버지와 아들 간의 끈끈한 정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극복하고 있지만, 이 글의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혈육 관계가 아니다.
- ⑤ <보기>의 만도와 진수는 모두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이지만, 이 글에서는 주 대위만이 부상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며 김 일등병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가 아니다.

<보기> 분석		
	너와 나만의 시간	수난 시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다룸. • 전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인물이 등장함. • 화합과 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 부상자와 낙오된 상황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주 대위는 삶에 대한 의지와 감각을 제공하고 김 일등병은 신체적 도움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 제2차 세계 대전부터 6·25 전쟁까지 두 세대의 비극을 다룸. • 전쟁을 겪은 후의 모습을 다룸. • 부자 간의 정을 바탕으로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시련을 극복함.

핵심 포인트 ① 장애인 ② 활 ③ 의지

1. ⑤ 2. ③ 3. ⑤ 4. ①

윤영수, 「착한 사람 문성현」

- 갈래: 단편 소설
- 성격: 사실적, 회상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195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 공간적-서울
- 주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장애인의 삶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존엄성

• 특징

- ① 장애인의 삶이라는 감성적인 소재를 객관적으로 서술함.
- ②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지만 작품 전체로는 역순행적 구조임.
- ③ 작품 각 부분의 소재목이 인물의 삶과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 구성

출생	뇌성 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문성현과 할머니의 죽음
희망	막냇동생 승현의 돌잔치 이후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성현(→ 수록 부분)
혼란	아버지의 죽음과 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문성현
평온	동생들의 성장과 본가를 떠나 아파트로 이사하는 가족
분노	어머니의 죽음으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문성현
살아 있음	문성현을 성의 없이 돌봐 주는 예산덕과 죽음을 맞이하는 문성현

- 해제: 이 글은 뇌성 마비를 앓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출생’, ‘희망’, ‘혼란’, ‘평온’, ‘분노’, ‘살아 있음’이라는 6개의 소재목으로 나눠 그린 작품이다.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과 이를 따뜻하게 감싸 주는 집안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존엄성과 희망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Ⅰ 서술상의 특징 파악 Ⅰ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서술 방식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도록 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이 글은 작품 속 인물이 아닌 외부의 서술자의 서술로 전개되며,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도 찾아볼 수 없다.
- ②,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이 아니므로,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된다는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이 글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Ⅰ 등장인물의 이해 Ⅰ

2. 문성현의 동생 우현과 승현이 문성현을 부끄러워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문성현이 승현의 돌잔치 활을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문성현의 아버지는 문성현이 휠체어에 편하게 앉게 되자 신이 나서 주말마다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Ⅰ 소재의 기능 파악 Ⅰ

3. 문성현은 ‘활’(㉠)을 통해 건강하게 움직이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희망을 품게 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슴 떨리는 열망을 품는다. 즉, ㉠과 ㉡은 모두 문성현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문성현에게 가슴 떨리는 열망이기도 했고, 부끄러워하고 싶은 안타까움이기도 했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문성현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그러나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희망을 품게 하는 소재일 뿐 복합적 감정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 ② 문성현은 사람들이 막냇동생 승현이 돌잔치로 활을 잡자 장군 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후 말을 타고 활을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활’은 문성현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소재이다.
- ③ ‘활’과 ‘텔레비전’은 모두 문성현에게 의미 있는 소재이지만 동생과의 우애와 관련 있는 소재는 아니다. 이 글에 문성현이 동생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활을 가지고 노는 등 우애와 관련한 행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문성현은 텔레비전을 보며 세상 풍경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된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문성현에게 외부 세계를 보여 주는 창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활’은 희망을 품게 하는 소재일 뿐 외부 세계를 보게 하는 소재는 아니다.

Ⅰ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Ⅰ

4. 문성현은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성현은 고개를 가누고, 입을 다물고, 텔레비전을 켜고, 자리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성현이 신체적 한계로 존엄성을 잃어 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② 마지막 문단에서 서술자는 문성현의 입장에서 ‘더 힘든 고난, 더 더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절대 힘들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난을 마주하는 문성현의 태도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
- ③ 문성현의 어머니는 자리에 앉는 연습을 하면서 문성현이 벽을 상하게 하여도 환히 웃으며 응원하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성현을 따뜻하게 감싸 주며 격려하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이 글은 주인공의 삶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목으로 그려 냈다고 하였으며, 이 글에서 문성현은 막냇동생

승현의 활을 희망의 상징으로 삼아,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춤을 추고,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시위를 당기겠다는 희망을 드러낸다.

- ⑤ 문성현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후 예전처럼 곁합치거나 울지 않고 그 결과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하였다. 이는 문성현이 장애를 인식한 후 느낀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71 쪽

04 한계령

핵심 포인트 ① 원미동 ② 은자 ③ 고향 ④ 내적

1. ④ 2. ② 3. ③ 4. ④

- 양귀자, 「한계령」**
-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연작 소설
 - 성격: 회상적, 애상적, 감상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시간적-1980년대 / 공간적-부천시 원미동
 - 주제: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
 - 특징
 - ① 현재와 과거 회상이 교차되면서 서사가 전개됨.
 - ② '부천'과 같은 실제 지명을 드러내 이야기의 현실성을 부각함.
 - 구성

발단	작가인 '나'는 밤무대 가수가 된 어릴 적 고향 친구 은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림.
전개	'나'는 집안의 가장이었던 큰오빠가 고향의 변화와 함께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함.
위기	은자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 오라고 하지만 '나'는 은자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 두려워 찾아가지 못함.
절정	'나'는 은자를 찾아가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은자와 생각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 「한계령」을 듣고 돌아옴.
결말	은자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나'의 무심함을 질타하며 곧 개업할 카페에는 꼭 들러라고 당부함.

- 해제: 이 글은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작가가 1980년대에 부천시 원미동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25년 만에 연락

해서 자신을 찾아오라는 친구 은자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은자가 일하는 새부천 클럽을 찾아가고, 거기서 은자라 생각되는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듣는다. 이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와 동시대에 살았던 소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연민과 위로를 느낀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소설 「한계령」과 가요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 양희은 노래/하덕규 작곡, 「한계령」

한계령은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을 잇는 고개로, 태백산맥의 설악산 부근에 있으며 해안 지역과 내륙 지방을 잇는 험한 고개이다. 노래 「한계령」 속 한계령은 나를 위로하는 존재인 동시에 내가 힘겹게 올라야 할 대상이며, 오른 후에는 지친 어깨를 떠미는 바람밖에 없는 곳이다. 주인공인 '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젊음을 바쳐 가족을 부양하고 이제는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큰오빠의 모습을 보고, 그렇기에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고달픈 삶을 살아온 또 하나의 소시민인 '미나 박' 은자임을 확신하게 되고, 노래 「한계령」을 동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위로의 노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I 서술상의 특징 파악 I

1. 이 글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은자의 전화를 받은 '나'가 은자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끌어낸 서민들의 애환에 대한 사색과 은자로부터 연상된 고향과 큰오빠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이 글은 '나'의 시각에서 은자와 큰오빠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글은 주로 서술자인 '나'의 내적 독백과 통화에서의 상대방의 말로 서술되고 있으며, 은자와 큰오빠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내용의 주를 이룬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각각의 인물의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이 글은 이야기 내부의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과거의 기억들과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거나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글은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I 인물의 심리 파악 I

2.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자는 '나'와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 반면 '나'는 망설이던 끝에 결국 토요일 밤에 은자에게 가지 못했다.

오답 분석

- ① 은자가 가수, '나'가 작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은자와 '나'가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은자의 전화를 통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지만 이러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갈등하고 있다.
- ④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를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은자는 ‘나’가 체면을 차린다고 여기고 있다. 은자는 ‘나’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므로, ‘나’가 은자에 대해 체면을 차린다고 여길 이유는 없다.
- ⑤ 은자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으며, ‘나’는 은자를 통해 어린 시절과 고향에 대해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나’가 과거의 자신을 은자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지는 않다.

인물의 태도 파악

3. ㉠은 고향에 대한 기억 속 과거의 은자를 말하고, ㉡는 클럽 가수를 하고 있는 현재의 은자를 말한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나’가 ㉢를 통해 ㉣를 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이유를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나’는 ㉣로 인해 ㉠로부터 받아 왔던 삶의 위안을 상실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ㄴ. ㉠이 ㉣로 바뀐 것은 세월이 지나서일 뿐 ‘나’의 뜻이 아니라, ‘나’는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자책하고 있지도 않다.
- ㄷ. ‘나’는 ㉣로 인해 ㉠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을 뿐,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나타나 있지 않다.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이해

4. 무언가에 도전하며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은자는 계속해서 직접 부딪히는 인생을 살며 산봉우리를 힘겹게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나’의 큰오빠는 누구보다 치열한 인생을 산 인물로, 삶의 황혼기에 허무함에 빠져 있다. 따라서 힘겹게 산봉우리를 올랐으나 그 끝의 바람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노래 「한계령」의 가사에는 산봉우리에 오른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지친 어깨를 떠미는 바람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였으므로, ‘한계령’은 삶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
- ③ ‘나’는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기는 굳건한 쇠문,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와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한계령’을 탐구하고 사색하는 태도를 통해 이를 수 있는 경지로 생각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⑤ ‘나’는 은자와의 통화 후 은자의 삶이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 상처 입으면서도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는 원미동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음을 생각해 낸다. ‘나’는 이들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05 이생규장전

핵심 포인트 ① 환신 ② 운명

1. ⑤ 2. ④ 3. ④ 4. ②

김시습, 「이생규장전」

-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
- 성격: 전기적, 환상적, 비극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배경: 시간적-고려 공민왕 시대 / 공간적-송도(개성)
- 특징
 - ① 비현실적이고 신이(神異)한 내용을 다룬.
 - ② 만남과 시련(이별)이라는 서사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됨.
 - ③ 한문 문어체를 통한 아름답고 화려한 표현이 많음.
 - ④ 삽입 시를 넣어 산문 문학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구성

발단	이생이 최 씨를 만나 사랑에 빠짐.
전개	이생과 최 씨는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이별하나, 최 씨 부모의 개입으로 혼인하게 됨.
위기	최 씨가 흉건적의 난으로 인해 죽음.
절정	이생 앞에 최 씨의 환신(幻身)이 나타나 행복하게 지냄.
결말	최 씨가 저승으로 떠난 이후 이생도 세상을 떠남.

• 해제: 이 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전기 소설로, 이생과 최 씨의 만남과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 전반부와 흉건적의 난 이후 살아 있는 이생과 죽은 최 씨의 사랑이라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인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습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승려가 되어 방랑하는 생활을 하며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켰다. 그의 이러한 인생은 『금오신화』에서 유교와 불교, 도교적 사상의 조화로 드러나고 있다.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경주의 금오산(남산)에서 머문 7년 동안 쓴 다섯 개의 글을 묶은 소설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알려져 있다. 다섯 소설은 각각 남원의 노총각 양생이 부처와 저포(웃놀이)로 내기를 하여 짝을 찾기를 소원 빌고 죽은 처녀의 혼령과 배필을 맺는다는 내용의 「만복사저포기」, 개성의 이생과 최 씨

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그린 「이생규장전」, 개성의 홍생이 술에 취해 부벽정에서 수천 년 전 기자(箕子)의 후손으로 선녀가 된 기 씨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내용의 「취유부벽정기」,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에 다녀온 고려 사람 한생의 꿈 이야기인 「용궁부연록」, 고려 사람 박생이 꿈속에서 남쪽 여라의 땅에 다녀오는 꿈을 꾸 후 크게 깨닫는다는 내용의 「남염부주지」가 있다. 이 작품들은 배경이 모두 국내이며 자주성과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편, 주인공의 기이한 경험을 다루는 전기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Ⅰ 서술상의 특징 파악 Ⅰ

1. 제시된 부분은 주로 이생과 최 씨가 주고받는 대화와 이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등장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 않고, 서술자의 시선에 따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제시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환신을 통해 이생이 최 씨와 재회했다 헤어지기는 하지만, 꿈을 통해 인물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④ 이생과 최 씨가 재회했다 다시 헤어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긴박한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Ⅰ 작품의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Ⅰ

2. '와신상담(臥薪嘗膽)'은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난리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근심과 원한이 마음에 가득 찬 최 씨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의미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 정도이다.

오답 분석

- ①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인생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로, 이생이 지난날 최 씨와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며 덧없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다.
- ② 백년해로(百年偕老)란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을 뜻하는 말로,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다는 최 씨의 소망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 ③ 사고무친(四顧無親)이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뜻하는 말로, 난리 중 의지할 곳도 죽음을 위로받을 곳도 없던 처지의 최 씨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 ⑤ 흥진비래(興盡悲來)는 즐거운 일이 다 하면 슬픈 일이 온다는 말로, 재회 후 즐거움 끝에 슬픈 이별이 닥쳐움을 알리는 최 씨의 말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Ⅰ 삽입 시의 의미 파악 Ⅰ

3.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는 최 씨와 이생이 이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분석

- ①, ② 1~4행은 흥건적의 난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 씨의 상

황과 당시의 심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5~8행은 최 씨와 이생이 이별하여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보기>의 '원앙'은 짝을 잃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 글에서 최 씨가 이생과 헤어진 후 홀로 죽음을 맞이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와 동일하다.
- ⑤ <보기>의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는 최 씨가 느끼는 삶과 죽음의 절대적 거리감과, 저승으로 가고 나면 이생과의 인연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

<보기> 분석

삽입 시의 내용과 기능

1~4행	흥건적의 난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 씨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
5~8행	최 씨와 이생이 이별할 상황에 처했으며, 이별한 후에는 둘의 인연이 끝나게 됨을 표현



-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을 피함.
-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암시함.

해설 더하기

무산 선녀

전국 시대 초나라 회왕이 잠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산의 여인을 만나 즐거움을 누리다 회왕이 다시 만날 것을 간청하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고사에 등장한 인물

Ⅰ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이해 Ⅰ

4. ㉡는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전기 소설의 특징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인물과 세계의 갈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흥건적의 난에 의해 최 씨가 목숨을 잃고 결국은 저승으로 떠나는 사건으로, 전쟁과 죽음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갈등한 결과 인간이 패배했음을 드러낸다.

오답 분석

- ① 최 씨와 이생이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로, 인간과 세계와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최 씨가 환신(幻身)으로 이생 앞에 나타난 것은 죽은 자가 이승으로 왔다는 것으로 인간과 세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으며, '전기(傳奇)'적인 성격만이 드러난다. 또한 최 씨는 천녀의 혼과 함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천녀의 혼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 ④ 부부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는 것에서 인간과 세계의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최 씨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이생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술을 권하며 위로하는 것에서는 갈등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 분석

구분	중국의 전기	우리나라의 전기 소설
공통점	기이한 사건이 등장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사용됨.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않음. 결말의 양상이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와 향유층의 불우함을 위로하려는 동기로 창작됨. 유기적으로 구성됨.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가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짐.

06 예덕선생전

077쪽

핵심 포인트 ① 신분 ② 혁신적(개방적)

1. ③ 2. ⑤ 3. ④

박지원, 「예덕선생전」

-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 성격: 교훈적, 예찬적, 설득적
- 주제: 벼를 사귀는 올바른 도(道)와 엄 행수의 삶 예찬
- 배경: 시간적-조선 시대 / 공간적-한양
- 특징: ① 설득하는 어조가 두드러짐.
②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가 나타남.
③ 한자어 및 고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 구성

기	선굴자가 인분을 나르는 일을 하는 엄행수를 '예덕 선생'이라 존칭하며 벼로 사귀려 하는 것에 자목이 반발함.
서	선굴자는 자목에게 진정한 벼 사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비천할지라도 분수를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엄행수의 삶을 예찬함.
결	선굴자는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행수의 덕이 높기 때문에 그를 예덕 선생이라 높이는 것이라 말함.

• 해제: 이 글은 똥을 저 나르는 더러운 일을 하지만 덕이 있다고 칭송받는 엄행수라는 인물을 통해 무위도식하며 허욕에 가득 찬 당대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한 한문 소설이다. 이 글은 박지원의 다른 소설과 달리 대화를 중심으로 한 문답 형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제자 자목이 스승 선굴자가 엄행수와 사귀는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를 비판하는 물음을 던지자, 선굴자는 벼를 사귀는 옳은 도에 대해 가르치는 한편, 엄행수의 인물됨을 근거로 그가 벼로 사귀만한 사람이라 대답한다.

이러한 선굴자의 대답을 통해 미천한 신분인 엄행수를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한 데에서 작가 박지원이 가진 계급 타파 의식, 인간 평등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정치가, 사상가, 소설가이다. 그는 서울의 백담 부근(지금의 종로 탑골 공원)에 살며 실학자 이덕무, 이서구, 유득공, 박제가, 홍대용 등과 교류하였는데 이들을

북학파, 혹은 백담파라고도 한다. 박지원은 「예덕선생전」의 선굴자와 마찬가지로 벼를 사귀는 데에 신분에 구애받지 않았다. 선굴자의 모델이 되는 이덕무나 박제가, 유득공은 서얼 출신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서얼의 신분임에도 등용된 이들이었다. 그는 실학자로서 실리와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사상은 그의 벼 사귀는 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무위도식하고 무능한 양반을 규탄하는 한편, 인간관계가 엄격하게 신분제로 규제되기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로운 교제에 바탕을 둔 평등 윤리로서의 우정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폭로하고, 그것을 서민의 생활 도덕에서 찾고자 하였다.

! 작품의 종합적 이해 !

1. 이 글에서는 선굴자와 자목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 선굴자는 '의원이 자기 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 곳 못한다.'라는 속담을 통해 제자 자목에게 벼를 사귀는 올바른 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⑤ 선굴자와 자목의 대화를 통해 선굴자가 말하는 엄행수의 평소 행실을 바탕으로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엄행수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서술자가 엄행수에 대해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세부 내용 파악 !

2. ㉠과 ㉡은 모두 세속적인 사귀는 의미를 의미한다. ㉠은 자목이 이를 두고 '시정배나 겸복 따위의 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세속적 사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은 세속적 사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자목에게 선굴자가 '수치로 여기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기'는 세속적 사귀는 의미를 알 수 있다. ⑤는 덕으로 사귀는 올바른 사귀는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속된다는, 선굴자가 말한 도의지교의 내용이므로, 세속적 사귀는 아닌 참된 사귀는에 해당한다.

오답 분석

- ① ㉠의 앞부분에 제시된 선굴자의 말인 '굽는 데도 방법이 있으니 ~목에 침노해서는 안 된다.'의 내용에 해당하는 말로, 선굴자는 이를 가리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정한 선을 지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해 주는 세속적인 사귀는 의미를 의미한다.
- ② ㉠의 앞부분에 제시된 선굴자의 말인 '그의 잘못을 띄워 놓고 말해 변죽만 울리고 ~마음속에 감동하여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 같을 것이다.'의 내용에 해당하는 말로, 선굴자는 이를 가리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대방에게 단점은 회피하여 말하지 않고 장점만을 말해 주는 세속적인 사귀는 의미를 의미한다.
- ③ ㉡을 자목은 '시정배나 겸복 따위의 일'이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선굴자의 말인 '시교(市交)는 이해(利害)로 사귀는 것이고'를 통해 세속적인 사귀는 천한 자들이나 하는 이해관계에 따른

사킴이라 생각됐음을 알 수 있다.

- ④ ㉠의 뒤에서 선굴자가 시교(市交), 면교(面交)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속적인 사킴으로 이야기한 내용이다.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이해와 감상 I

3. [C], [D]는 엄 행수의 구체적인 행적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A]는 하층민인 엄 행수의 신분, 성명, 거주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하층민에 대한 관심과 인물의 개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조선 후기의 '전'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② [A]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B]는 자목의 질문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다.
- ③ [B]에는 엄 행수의 인간적 가치와 미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⑤ [E]에서는 선굴자가 분수에 맞는 삶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문헌을 인용하고 있을 뿐, 엄 행수의 업적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 분석

'전(傳)'의 구성과 변화 과정

1. '전'의 구성

구분	내용
처음	인물의 가계(家系), 신분, 성명, 거주지를 설명
중간	인물의 사상, 행적 등을 제시하여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
끝	인물의 업적과 미덕을 논하여 칭찬

2. '전'의 변화 과정

조선 전기	실존 인물인 충신열사의 인간적 가치와 미덕을 통해 교훈적 내용을 전달함.
조선 후기	허구적 요소가 증가하고, 하층민에 대한 관심과 인물의 개성이 부각됨.

080쪽

01 춘향전

핵심 포인트 ① 암행어사 ② 탐관오리 ③ 사회

1. ④ 2. ⑤ 3. ⑤ 4. ④

작자 미상, 「춘향전」

- 갈래: 판소리계 소설, 영정 소설
- 성격: 해학적, 풍자적 • 시집: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조선 시대 / 공간적-전라남도 남원
-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 /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
- 특징: ①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재미를 보여 줌.
② 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타남.

③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자주 나타남.

④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나타남.

• 구성

발단	단옷날 그네를 타던 춘향은 남원 부사의 아들 몽룡과 만나 사랑에 빠짐.
전개	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되고,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과 이별함.
위기	남원 부사로 새로 부임한 변학도는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을 핍박하고 옥에 가둠.
절정	한양으로 간 몽룡은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돌아옴.
결말	몽룡의 어사출두로 춘향과 몽룡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한양으로 가 백년해로함.

- 해제: 이 글은 구전 설화가 판소리 사설(「춘향가」)을 거쳐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신소설, 창극, 소설,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갈래로 재창조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표면에 드러난 주제는 양반가의 자제인 몽룡과 퇴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주제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항거이다. 이 글에서는 춘향의 숭고한 사랑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두 가지 장애 요소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춘향과 몽룡의 신분적 차이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변학도의 수청 강요인데, 이에 대한 춘향의 항거는 몽룡과의 재회, 춘향의 신분 상승 등의 극적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극적 구성은 해학적 표현, 토속적 어조와 어울려 독자들에게 흥미와 쾌감을 제공해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I 등장인물의 이해 I

1. 운봉은 차운을 한 수씩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걸인(몽룡)이 잔치에 들어와 어색해진 분위기를 환기하고, 걸인 행색인 몽룡이 차운을 잘 모를 것이라 여기고 쫓아낼 생각에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안을 몽룡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운봉이 학문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분석

- ① 운봉이 몽룡의 시를 보고 '아뿔사, 일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아전들을 단속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운봉이 몽룡의 시를 읽고 아전 단속을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변학도가 왜 돌아다니느냐고 묻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몽룡이 어사 출두 이후에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전임 남원 부사인 아버지가 계셨던 곳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장소를 옮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예를 지키는 효의 논리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춘향은 정체를 숨기고 수청을 요구하는 몽룡의 말에 대해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라고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절개를 '충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나무'에 비유하여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Ⅰ 표현상의 특징 파악 Ⅰ

2. ㉠에서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로 춘향의 죽음을 표현하고, '봄'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계절로 춘향이 살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화춘풍'은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라는 의미와 '이몽룡의 바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 춘향을 살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몽룡이 춘향을 살렸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에서는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축약적 심상을 대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분석

- ① 수령들이 받은 다담상이 좋은 반찬이 있는 것과 달리, 몽룡이 받은 상은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초라한 반찬만이 놓여 있다. ㉠에서는 '어찌 아니 통분하랴.'를 통해 몽룡이 다담상을 비교하고 느낄 심정을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② 변학도의 잔치는 '좋은 잔치가 될 수 없고, 푸대접을 받은 몽룡은 술과 안주를 포식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에서는 사실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을 통해 변학도의 잔치에 대한 몽룡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열거는 사물이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고, 대구는 비슷한 구조의 구절이나 문장을 짝지어 표현하는 것이다. ㉠에서는 열거와 대구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아전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도치는 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에서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가 바른 문장인데, '바람'과 '문', '목'과 '물'의 순서를 바꿔 표현함으로써 당황한 변학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Ⅰ 세부 내용의 파악 Ⅰ

3. [A]의 시는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본관 사또(변학도)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사또(이몽룡)가 출두한다는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과거 본관 사또의 횡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분석

- ①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가렴주구하는 현실을 비판하여 「춘향전」의 여러 주제 중의 하나인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라는 부분에서 몽룡이 백성들이 느끼는 가혹한 정치에 대한 분노를 대변하여 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 ③ 'A는 B이다' 형식의 은유법을 활용하여 가혹한 정치의 모습과 백성들의 심정을 형상화함으로써 몽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④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서 변학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를 지음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암행어사 출두라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Ⅰ 내적 증거를 통한 작품의 이해와 감상 Ⅰ

4. <보기>에서 춘향이 '한양성으로 올라다가 선산발치에 묻어 주고'라고 한 것은 죽어서라도 몽룡의 선산에 묻혀 몽룡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의미이자, 신분적 제약을 넘어 정처로 인정받고 싶은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이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라고 한 것은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정절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 따라서 두 말은 서로 관련이 없다.

오답 분석

- ① <보기>에서 몽룡이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청을 들라고 말하는 것은 능청스럽게 춘향을 시험하는 것이다.
- ② <보기>에서 춘향은 몽룡에게 자기가 내일 변학도에 의해 죽을 것이며, 죽으면 샅꾼인 채 달려들어 자신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춘향이 이 글에서 몽룡을 찾고 있는 것이다.
- ③ '얼굴 들어 나를 보라.'라는 것은 자신이 몽룡이며, 춘향이 살 수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기>에서 춘향에게 '내가 나를 어찌 알고'라고 한 것은 자신이 어사임을 몰라 춘향이 체념하고 있기에 한 말로, 둘은 서로 관련이 없다.
- ⑤ <보기>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는 자신이 어사 출두를 하여 춘향이 죽음을 맞지 않고 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보기> 분석

<보기>는 어사출두 전날 몽룡이 춘향이 갇혀 있는 옥에 찾아간 장면이다. 걸인의 모습으로 온 몽룡의 모습을 보면서 춘향은 더 이상의 살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자신이 죽거든 다른 사람들이 시신에 손대기 전에 몽룡에게 거두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이몽룡 집안의 선산 근방에 묻고, 수절한 것을 비석을 세워 기려 줄 것을 당부한다. 몽룡은 춘향의 모습을 보며 다음 날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서 일을 바로 잡을 마음을 먹고, 정체를 끝까지 숨긴 채 춘향을 달래고 있다.

08 황월선전

핵심 포인트 ① 조력 ② 용서

1. ① 2. ② 3. ③ 4. ⑤

작자 미상, 「황월선전」

- 갈래: 고전 소설, 가정 소설, 계모형 소설
- 성격: 사실적(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함.)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봉건적 가족 제도 속 구성원 간의 갈등과 화해
- 특징: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함.
② 전형적인 계모형 가정 소설을 벗어나 계모를 용서하는 결말을 보임.
-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한글 소설로, 전설 소설의 지식과 계모 간의 갈등을 통해 봉건적 가족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그러나 후설 소설인 월성이 전설 소설인 월선을 도와주는 모습과 월성이 자신을 모함한 계모 박 씨를 용서하는 장면은 기존의 계모형 가정 소설의 전형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를 통해 인물의 갈등 양상과 그 해결 과정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 인물의 행동과 심리 파악 I

1. 유수 부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승상은 “어떤 사람의 따님이 저러하고?”라고 말하며 통곡한다. 이는 유수 부인을 보면서 살아 있으면 비슷할 나이일 자신의 딸 월선을 떠올리고, 월선을 죽게 만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인한 것이다.

오답 분석

- ② 비복들이 통곡하는 승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승상이 월선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 ③ 월성은 “어찌 자식의 몸에 칼을 대어 유혈을 내리오?”라고 말하며 가족 간의 인륜을 들어 월선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승상을 설득하고 있다. 월선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든 것은 앞에서 월선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월선을 변호하는 부분에 나타난다.
- ④ 월성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월선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그와 같이 제안한 것이다.
- ⑤ 박 씨가 “무슨 낮으로 타인을 위하느고?”라고 월선을 꾸짖는 것은 월선이 외간 남자가 자신의 방에서 나온 것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변명을 듣고 월선을 꾸짖기 위한 것은 아니다.

I 세부 내용의 파악 I

2. 서술자는 인물의 속마음을 ‘가슴이 서늘하고 분기탱천하되’, ‘가슴이 서늘하여 어쩔 줄 몰랐다.’라고 ‘말하기’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유수 부인(월선)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월선이라는 인물에 대해 들은 것을 전달 하듯이 말하고 있다.
- ③ 유수 부인은 비단 틀을 매개로 하여 박 씨에게 질문을 계속하며 박 씨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유수 부인은 박 씨에게 ‘~가’, ‘~다’ 형식의 ‘하계체(예사 낮춤)’으로 묻거나 말하고 있고, 박 씨는 ‘~소이다’ 형식의 ‘하오체(예사 높임)’으로 답을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유수 부인이 박 씨보다 지위가 더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박 씨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하여 어쩔 줄 몰랐다.’라는 부분에서 박 씨는 월선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설 더하기	
상대 높임법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높임 표현	
격식체	화자와 청자가 의례적으로 격식을 갖추는 관계에서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예 이것을 받으십시오. • ‘하오체’(예사 높임) 예 이것을 받으시오. • ‘하계체’(예사 낮춤) 예 이것을 받게. • ‘해라체’(아주 낮춤) 예 이것을 받아라.
비격식체	화자와 청자가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요체’(두루 높임) 예 이것을 받아요. • ‘해체’(두루 낮춤) 예 이것을 받아.

I 내적 증거를 통한 작품의 이해 I

3. <보기>에는 월선이 집을 떠난 뒤에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 마지막 문장인 ‘가련한 월선이 그냥 지나가기 어렵도다.’에서 부친과 동생에게 자신이 월선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② ‘방’을 ‘너’라고 의인화하여 ‘너’, 즉 ‘방’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부분에서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집을 그리워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공산 아월은 적막한데 두견이 슬피 울며’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심정을 ‘두견’이라는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광대한 천지간에 하나의 몸이 돌로 떨어져 있도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몸’은 자신이 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몸이 돌로 떨어져 있도다.’는 자신이 ‘월선’과 ‘유수 부인’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I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I

4. <보기>를 보면 계모형 소설은 재산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는 쟁총형 소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박 씨가 승상이 월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질투를 느낀다는 내용은 서로 사랑받기 위해 다투는 쟁총형 소설의 특징이다.

오답 분석

- ① 월성은 계모인 박 씨의 아들이다. 작품에서 월성은 월선의 무죄를 주장하고 목숨을 구하려 노력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계모형 소설의 특징인 ‘계모와 후처의 자식이 전실 자녀에게 고통과 수난’을 주는 것과 다른 특징이다.
- ② 일반적인 계모형 소설은 계모가 전처의 자식에게 고통과 수난을 주고 계모는 무조건 나쁘게 표현되는데, 운행을 시켜 계약을 짜는 박 씨의 모습은 이러한 특징과 일치한다.
- ③ 일반적인 계모형 소설은 결말 부분에서 계모의 학대로 전처 자식이 죽는 비극적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월선이 박 씨를 용서하는 결말은 이러한 특징과 차이가 있다.
- ④ 일반적인 계모형 소설은 가장으로서 무기력한 남편이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박 씨의 말을 듣고 월선을 죽이라고 하는 승상의 모습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 분석

계모형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1. 계모와 후처의 자식이 전실 자녀에게 고통과 수난을 주는 내용과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2. 소규모 가정을 무대로 하고, 재산 갈등을 다룬다.
3. 결말 부분에서 계모의 학대로 전처 자식이 죽는 비극적 정서가 두드러진다.
4. 계모를 무조건 나쁘게 그리거나 전처 자식을 모해하는 수법이 나타난다.
5. 계모를 가정의 이질적 존재로 본다.(→ 부계 혈통의 강조)
6. 가장으로서 무기력한 남편이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봉건 체제의 붕괴)

III

극·수필 문학

극·수필 문학 필수 개념

1 극의 개념과 특성

대표 유형으로 확인

091쪽

1. ③

1. S# 30에서 친할머니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고 정신을 놓고 있는 외할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는 동만 모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와 더불어 가족을 잃은 동만이 가족의 슬픔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S# 28에서 S# 29로 바뀔 때 페이드아웃(F.O.)으로 끝나 페이드인(F.I.)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이는 빛의 어두워짐과 밝아짐이라는 대립적 매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④ S# 31은 동만 모와 그 동생 길자가 등장한다. 동만 모는 전쟁으로 동생을 잃은 슬픔에 자리에 누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고, 동만 모의 동생 길자 역시 오빠를 잃은 상황이므로 침통하고 슬픈 분위기로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S# 32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외할머니와 이를 지켜보는 동만을 대사 없이 동작만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동과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수필의 특성과 수용

대표 유형으로 확인

093쪽

1. ③ 2. ②

1. 이 글은 간결한 문장도 있지만 주로 만연체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동해에 대한 글쓴이의 추억을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객정적이라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동해를 여행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동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④ 대상인 동해를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하여 대화하듯 서술하고 있으며, 연쇄적인 연상을 통해 동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⑤ 동해안 바닷가의 모습과 여름의 구경거리, 산물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2. 물개는 '물에 살아도 숨은 물 밖에 대는 양반', '죽을 때 물 밑에 가라앉아 바윗돌을 붙들고 절개 있게 죽는 선비' 같은 면모로 볼 때 지조 있는 성격을 가진 한편, '때로는 갈매기를 따르며 노는 활랑'과 같이 풍류를 즐기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물개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지조와 풍류를 아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한량과 같은 속성을 지니기는 했으나, 선비나 양반과 같이 지조있는 속성 역시 지니고 있으므로 무책임하고 방탕한 태도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지조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④, ⑤ 지조와 절개있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남의 눈을 피해 사는 은둔 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094쪽

이 원고지

핵심 포인트 ① 집 ② 원고 ③ 해설자 ④ 신문 기사

1. ④ 2. ② 3. ③ 4. ④

이근삼, 「원고지」

- 갈래: 단막극, 부조리극
- 성격: 풍자적, 상징적
- 주제: 현대인의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 소외의 현실 풍자
- 특징
 - ① 특별한 사건 및 인물 간의 뚜렷한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 않음.
 - ②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와 행동 등이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풍자의 효과를 높임.
 - ③ 인물의 이름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 인물 자체의 특성보다는 주제 의식의 표현에 중점을 둬.
 - ④ 작중 인물이 해설자의 역할도 하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등 실험극적인 성격을 보임.

• 구성

발단	장녀, 장남, 교수, 처가 차례로 등장함.
전개	교수는 피곤에 지쳐 있으며, 처의 추궁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모습을 보임. (→ 수록 부분)
절정	장녀와 장남이 처에게 돈을 요구하고, 감독관과 처는 교수에게 번역 일을 재촉함.
하강	교수는 잃어버린 희망과 정열을 천사에게서 다시 찾으려 하나 실패하고, 감독관은 다시 번역을 독촉함.
대단원	교수는 영자 신문을 보고도 번역하려 하고, 감독이 다시 번역을 독촉함. 감독관은 원고를 돈으로 바꿔 오느라 지친 처에게 집안일을 독촉함.

- 해제: 이 글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채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풍자한 희곡이다. 정상적인 의

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 버린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특정한 서사나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이다. 한편, 작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구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부조리극으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Ⅰ 작품 형식의 이해 Ⅰ

1. 작중 인물인 장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분석

- ① 처가 처음 등장할 때 ‘적당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지시문 등으로 볼 때, 무대 장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극 초반에 장녀의 대사가 모두 끝난 후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서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시끄러운 음악이 끝난 후에는 장남과 장녀의 방 불이 켜지고 둘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③ 특별한 사건 및 인물 간에 뚜렷한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기승전결이 있는 인과적 전개가 아닌 유사한 에피소드가 기계적으로 반복되거나 별 의미 없이 주고받는 대사 등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 ⑤ 등장 인물의 이름 대신 ‘교수, 처, 장남, 장녀’와 같은 보통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극 중 인물들이 현대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임을 나타낸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 방식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상실되고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Ⅰ 등장인물의 특성 파악 Ⅰ

2. 장남이 든 음악의 제목 「찬란한 인생」은 교수가 현재 처한 삶과 대조되어 꿈을 잃은 교수의 인생을 풍자하면서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분석

- ① 피곤하여 쓰러져 잠든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터는 행동을 통해 처가 교수의 건강보다는 교수가 벌어들인 돈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처와 달리 장남은 ‘호령이나 하듯이’ 말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왜곡된 관계를 보여 준다.
- ④ ‘원고지 칸 투성이’의 양복은 그 옷을 입은 교수의 틀에 박힌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⑤ 교수와 처의 행동을 반대로 설명해 주는 장녀와 ‘가벼운 곡’을 틀라는 처의 요구에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을 트는 장남의 행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Ⅰ

3. [A]에서 ‘교수’는 신문을 보며 ‘-군’, ‘-야’ 등의 어미를 사용하여 기사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데, 기사에 나온 비상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이한 어조로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의 태도는 사회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을 보여 준다.

오답 분석

- ①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인 것이나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등은 비현실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건은 교수를 둘러싼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 ② 삼 년 전 신문의 내용과 오늘 신문의 내용이 흡사한 것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교수의 삶과 관련이 있다.
- ④ 교수의 번역품인 『개성을 잃은 노동자』의 제목은 교수 자신의 삶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 ⑤ 출판사의 이름이 ‘작취사’에서 ‘악마사’로 바뀌어 제시된 것은 교수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Ⅰ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Ⅰ

4. ㉔은 교수가 만나야 할 사람이 이 씨가 아니라 김 씨는 사실을 전달해 주려는 대사로, ㉑~㉓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 ㉑은 소도구를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㉔의 예에 해당한다.
- ② ㉒은 관객들이 놀랄 정도로 과장하여 하품 소리를 낸 것이므로 ㉔의 예에 해당한다.
- ③ ㉓은 장녀의 어머니인 처의 행동과 반대되는 말이므로 ㉔의 예에 해당하며, 등장인물인 장녀가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㉑의 예에도 해당한다.
- ⑤ ㉔은 사실과 반대로 말한 대사이므로 ㉔의 예에 해당한다.

0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핵심 포인트 ① 죽음 ② 헌신적 ③ 가족

1. ② 2. ④ 3. ⑤ 4. ①

노희경 원작 / 민규동 각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갈래:** 시나리오
- **제재:** 말기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인희의 삶
- **주제:** 어머니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 본 가족의 진정한 의미
- **특징:** ①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냄.
②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작가의 자전적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함.
③ 파편화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인희)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가는 모습을 그림.
- **해제:** 이 글은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원작을 바탕으로 민규동 감독이 연출하고 각본을 쓴 영화의 시나리오이다. 교재에는 인희와 정철, 인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만 수록하였으나, 자식인 연수(자신만을 생각하는 성격이지만,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후 아버지를 챙기고 동생을 다독임), 정수(삼수생이며 어려서 사고로 귀를 다쳐 보청기를 끼고 다님. 막내로 어리광을 부리며 살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함)와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로서의 인희의 사랑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는 인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이를 받아들이는 가족들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Ⅰ 등장 인물의 행동 파악 Ⅰ

1. S# 146에서 인희가 시어머니인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이다. 즉 제시된 장면은 할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죽은 후 보살필 사람 없이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S# 42에서 정철은 장 박사와 이야기하며 '나 같은 돌팔이 의사가 뭘 알아?'라고 하며 자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의사임에도 정작 아내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죄책감의 표현이다.
- ③ S# 163에서 정철과 인희와의 행복한 모습은, 곧 죽게 될 인희의 아픈 모습과 대비되어 영원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 이는 다가오는 인희의 죽음을 더욱 비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④ S# 167에서 인희가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는 남한강에 뿌린 어머니의 흔적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 자신이 매우 슬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자식들이 느낄 슬픔을 염려해 무덤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것이다.
- ⑤ S# 169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철은 '여보(아내)'라는 가정의 지위보다는, '인희'라고 직접 이름을 부름으로써 개인적 애정을 더욱 친밀하고 애뜻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시나리오의 특성 파악 Ⅰ

2. [D] 부분의 일상적 장면은 인희와 함께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아니라 인희가 죽고 난 후 혼자 남겨 될 정철이 인희를 그리워 할 순간들이다. [D]의 사소한 일상의 장면을 '인서트'로 표현한다면, 곧 다가올 인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정철의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A]는 장 박사와 정철이 인희의 수술 여부를 놓고 갈등하는 부분이다. 서로의 얼굴을 교차 편집하여 갈등 상황을 더욱 긴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 ② [B]는 인희가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런 인희의 복합적인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희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수 있다.
- ③ [C]의 인희와 정철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과 인희의 아파하는 모습을 '몽타주'로 표현함으로써 다가올 인희의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할 수 있다.
- ⑤ [E]는 정철이 인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을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게 표현하면, 인희의 죽음이 주는 감동과 여운을 더욱 부각할 수 있다.

Ⅰ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의 이해 Ⅰ

3. 이 글의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남편 정철과 가족들은 자신만이 우선인 모습을 보이지만, 인희의 암 선고 이후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인희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언급한 '새 집'은 인희가 홀로 자신을 희생하며 지키고자 노력한 '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희의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이 집을 꾸미기 위해 힘을 합치고 인희와 정철이 이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희 홀로 노력했던 '불완전한 모습'의 가정이 가족 전체가 노력하는 '완전한 모습'의 가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인희가 한평생 자식들을 보살피며 시어머니를 모셔 온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다.
- ② 인희가 시어머니인 할머니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이 평소에 원했던 화장이 아닌 무덤을 만들어 주길 원하는 장면 등을 통해 인희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③ 인희가 위태위태한 가족과의 관계에 지쳐 현실을 도피하고자 집을 지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희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집을 지었으며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
- ④ 인희는 병의 사실을 알기 이전부터 전원주택에 공을 들였다. 정철과 함께 단 둘이 새로운 집에 가 여생을 마무리한 장면을 통해 온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기> 분석

전원주택의 상징성과 의미

전원주택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인희의 꿈의 상징
인희가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는 인희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 인희의 죽음을 앞두고 남편과 딸의 손에 의해 완성된 전원주택은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완성을 의미함.

Ⅰ 작품의 재구성성을 통한 감상 Ⅰ

4. <보기>는 이 글의 원작 소설에서 S# 169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나리오보다 정철의 행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보기〉에서는 ‘정철은 오열하며’, ‘그는 서서히 몸을 굽혀 식어 버린 아내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다.’ 등 시나리오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인물의 구체적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분석

- ② 〈보기〉 부분에서 공간적 배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상징적 의미를 제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 ③, ④ 시나리오와 달리 소설은 서술자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보기〉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관찰자 시점 또는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S# 169’와 〈보기〉 모두 두 인물의 내면 심리보다는 정철이라는 한 인물의 내면 심리가 주로 서술되어 있다.

〈보기〉 분석	
소설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과 대화 중심 • 서술 중심으로 사건 전개 • 배경이나 상황을 통해 독자가 인물의 심리 추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와 지시문 중심 • 장면을 중심으로 극 전개 • 장면을 통해 관객이 인물의 성격이나 의미를 파악해야 함.

103쪽

03

하회 별신굿 탈놀이

- 핵심 포인트** ① 허위성 ② 위선적 ③ 풍자 ④ 권위 ⑤ 비판
1. ② 2. ③ 3. ⑤ 4. ①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 갈래: 민속극, 가면극(탈춤) 대본
- 성격: 해학적, 풍자적, 서민적, 비판적
- 주제: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 폭로
- 특징: ① 내용이 원초적이고 소박함.
② 언어유희에 의한 표현이 두드러짐.
③ 대표적인 농촌형 탈춤
- 구성

강신	음력 정월 초이튿날 아침 성황당에 올라가 성황신이 내린 서낭대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와 풍물을 울리며 마을을 돌고 탈놀이를 할 마당에 도착해 뉘.
무동 마당	각시광대는 무동을 타고 구경꾼들 앞을 돌면서 걸립(동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패를 짜 돌아다니며 풍악을 울리는 일)을 함.
주지 마당	주지는 곧 사자를 뜻하며, 벽사(辟邪)와 의식무(儀式舞)를 통해 잡귀와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탈판을 정화하고, 초랭이가 등장해 주지를 쫓아냄.
백정 마당	백정이 춤을 추다가 소를 잡은 후 구경꾼들을 희롱하고 우렁(수소의 생식기)을 구경꾼들에게 팸.
할미 마당	15살에 청상 과부가 되어 한평생 궁핍한 생활을 한 할미가 신세 타령을 「베를가」로 읊고는 쪽박을 들고 걸림함.

파계승 마당	춤을 추던 부네를 본 중이 부네를 쫓고, 둘은 어울려 춤을 춤. 그때 이때와 초랭이가 등장하자 중은 깜짝 놀라 부네를 옆구리에 차고 도망감.
양반·선비 마당	양반과 선비가 부네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백정이 내보인 우렁이 양기에 좋다고 하자 양반과 선비가 서로 사려고 다툼.
흔레 마당, 신방 마당	날이 어두워진 마을 입구 밭에 자리와 명석을 깔고 혼례식을 올린 후, 신방에서 신랑과 각시는 초야를 올림. 신방 마당은 신방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삼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진행함. 신방 마당이 끝난 후에는 헛천거리굿을 연행하고 모든 공연이 마무리 됨.

• **해제:** 이 글은 전통 민속극 가운데 대표적인 농촌형 탈춤으로, 지배 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당시 불교의 타락상을 드러내면서 피지배 계층인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탈놀이는 하회 지방의 별신굿의 재차(祭次)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나 특별한 몇몇 과정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제시문으로 수록된 제5과장 양반·선비 마당에서는 양반과 선비가 등장하여 자신들 스스로 상층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층 백성들의 억눌린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한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본래 안동 하회 지방의 마을 굿에서 연행되던 탈놀이이다. 하회 마을 사람들은 별신굿 탈놀이를 통하여 그때 그때의 세상살이를 풍자하고,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였다. 신분과 질서가 엄격했던 당시의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된 탈놀이가 하회라는 양반 마을에서 양반들의 목인 아래 또는 경제적인 지원 속에서 연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탈놀이가 보이는 일시적인 일탈을 용인함으로써 갈등과 저항을 줄이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양반들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작품의 풍자적 기법 파악 I

1. 초랭이가 양반에게 부네의 행방을 알리는 장면에서 의도하고자 한 바는 부네를 비판하는 양반의 반응이 지닌 위선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양반은 중과 부네를 두고 ‘망측한 세상’이라 한탄하지만, 자신 역시 부네와 어울려 놀고, 부네를 두고 선비와 다투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 준다.

오답 분석

- ① 현학적 태도란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태도이다. 양반은 ‘국추 단풍에 지체후 만강하옵시며~’에서 한자어를 섞은 문어체를 사용하며 부네에게 수작을 걸고 있다.
- ③ ‘아, 문하시중, 그까짓 거……. 우리 할빔은 바로 문상시대인 걸’에서 ‘문하시중’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선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④ 초랭이는 육경을 ‘팔만대장경 중의 아래경, 봉사의 앤경, 약국의 길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새경’이라고 설명하지만 양반과 선비는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
- ⑤ 양반과 선비는 점잖은 척하지만 실상은 부네를 두고 질투를 하며 부네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체와 학식이 더 낫다고 다투는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1 언어유희의 특징 파악 1

2. [A]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③에서도 '양반'의 '양'자와 '반'자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적 표현을 통해 양반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④, ⑤ 유사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 방식의 사례이다.
- ② 말의 순서를 바꿔 언어 도치를 활용한 표현 방식의 사례이다.

해설 더하기

언어유희

말장난으로서 재미있게 꾸미는 말의 표현을 의미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운봉의 갈비를 직신(힘을 주어 누르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 「춘향전」
비슷한 음운(각운)을 활용한 언어유희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스 반인지, 구레미전에 백반인지... - 「봉산탈춤」
도치법에 의한 언어유희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 「춘향전」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원님(노새/노 생원)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하여 - 「봉산탈춤」

1 극 중 인물의 대사와 행동 파악 1

3. ㉠은 '팔판대장경', '바라경', '앤경(안경)', '길경', '월경', '새경' 등 '경'으로 끝나는 말들을 나열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초랭이의 말로 보았을 때, 초랭이는 육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양반과 선비를 조롱하기 위해 아는 체를 하는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은 초랭이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무대와 관객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관객이 관찰자의 위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일반적인 서양 희곡과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극은 관객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하는 등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 ② ㉡은 부네의 행동이다. 신분제 사회이자, 남성 중심적 사회인 시대적 배경에서 지배 계층인 양반에게 자유롭게 다가가고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네는 행실이 가볍고 자유로운 성격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③ ㉢은 자신을 속이고 부네와 춤을 추는 양반을 보고, 초랭이가 자신을 조롱한 것인지도 모른 채 체통도 잃고 감정을 드러내는 선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양반이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었다는 자랑에 선비가 '팔서육경'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팔서육경'은 선비가 양반보다 자신이 더 잘났음을 드러내기 위해 꾸며낸 말로 선비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1 다른 작품과의 공통점 파악 1

4. 이 글의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를 말과 행동을 통해 조롱함으로써 양반 역시 어리석기도 하고 여색을 밝히기도 하는 세속적 인간임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초랭이는 양반의 허위 의식 및 신분 질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보기>의 말뚝이 또한 생원에게 '개문이 만복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양반들을 때리는 행동을 통해 양반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이 글과 <보기>에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 ③ 초랭이와 말뚝이가 양반에게 멸시당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양반 계층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다.
- ④ 초랭이와 말뚝이 모두 양반 계층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롱할 뿐이다.
- ⑤ 초랭이와 말뚝이 모두 양반보다 뛰어난 학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신분 여하를 막론한 학문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04 미안합니다

핵심 포인트 ① 미안합니다 ② 아름다운 ③ 말더듬이 ④ 자기 합리화

1. ③ 2. ⑤ 3. ⑤ 4. ①

장영희, 「미안합니다」

- 갈래: 수필(경수필)
- 성격: 일상적, 반성적, 자아 성찰적
- 제재: 「미안합니다」라는 말
- 주제: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위력과 가치
- 특징: ① 아버지의 일화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주제를 드러냄. ②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관련하여 대비되는 두 가지 일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함.
- 구성

처음	'미안하다'라는 말에 인색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 말에 관련된 '나'의 자각지심
중간 1	강의 시간에 영수를 오해하여 나무란 일에 대해 사과하지 못한 '나'
중간 2	주차 문제로 화를 내는 경비원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일을 원만히 해결한 '아버지'
끝	과거 영수 일에 대해 반성하는 '나'

- 해제: 이 글은 두 가지 일화를 제시하여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수필이다. 자신의 오해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학생에게 사과를 못한 일과, 오해로 인해 현관 앞에 차를 세운 것으로 인해 화를 내는 경비원에게 '나'의 아버지가 사과한 일을 제시하여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효력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미안하다」는 말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여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인격의 성숙을 드러내 주는 말임을 강조하고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글쓴이 장영희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 목발에 의존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진하여 대학

교에서 강의를 하며, 틈틈이 많은 수필 작품을 발표하였다. 글쓴이의 수필 중에는 신체장애로 인해 겪었던 많은 일화들과 그 일화들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리를 때로는 감동적으로 때로는 유쾌하게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미안합니다」도 여기에 해당한다.

Ⅰ 서술상의 특징 이해 Ⅰ

1.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라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이 글은 과거형 문장을 통해 과거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이 글에 제시된 일화 모두 ‘나’가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이 글에서 역설적 상황이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영수에게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Ⅰ 세부 내용 파악 Ⅰ

2. 영수가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다는 진상(㉠)을 알게 되자, ‘나’는 영수가 받았을 상처를 떠올리며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갈등에 빠진다. 하지만 이런저런 구실들(㉡)을 떠올리며 사과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갈등 상황을 완전히 해소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소라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은 ‘나’로 하여금 자기반성을 유도하지만, ㉡은 반성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영수에 대한 ‘나’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은 영수에게 사과 표현을 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은 사과 표현을 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제공한다.
- ④ ㉠이 ‘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영수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

Ⅰ 인물의 심리 파악 Ⅰ

3. ㉢는 경비원이 이유를 묻지 않고 현관 근처에 차를 댄 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경비원의 말 중에서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자주 배요.’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경비원은 이미 ‘나’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영수의 상황을 알게 된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 ② 사과의 방법을 궁리하던 ‘나’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사과하지 않는 것을 택한다.
- ③ 영수가 ‘나’와의 일을 다 잊었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과를 회피하려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아버지는 개인적인 사정과는 별도로 현관 앞에 주차를 한 자신

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 표현을 하고 있다.

Ⅰ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Ⅰ

4. A에서 글쓴이가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사과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은 맞지만, B를 통해 영수와 자신의 처지가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A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영수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비슷한 말더듬이 증세를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영수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헤아렸다.

오답 분석

- ② <보기>와 글의 흐름으로 볼 때 글쓴이는 A의 자신과 B의 아버지, 경비원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C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적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B의 사건을 통해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야기하며 사과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 ④ 주차 문제로 얽힌 사건을 경험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가치를 깨닫게 된 B를 통해 글쓴이는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 ⑤ 글의 흐름으로 보아 C에서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는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05 통곡할 만한 자리

핵심 포인트 ① 실학 ② 기쁨 ③ 창의적

1. ② 2. ③ 3. ⑤ 4. ④ 5. ②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기행 수필
- 성격: 사색적, 설득적, 교훈적, 비유적, 체험적
- 주제: 광활한 요동 별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 특징: ① ‘나’와 정 진사의 문답 구조로 내용을 전개함.
②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함.
- 구성

기	‘나’가 요동 별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할.
승	그 이유를 묻는 정 진사에게 ‘나’는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대답함.
전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물어야 하느냐고 묻고, ‘나’가 갓난아이의 울음처럼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게 된다고 답함.
결	요동 별판의 광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지는 여정과 백담에 대한 감상을 밝힘.

- 해제: 이 글은 『열하일기』 중 「도강록」 7월 8일의 내용으로, 드넓은 요동 별판을 보며 느끼는 감격과 기쁨을 울음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역설적인 발상으로 드러낸 고전 수필이다. 광활한 대륙에서 새로운 문물을 보고 들은 자신의 여행 체험을 갓난아이의 출생에 비유하여 인식하는 독창적인 사고가 돋보인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박지원은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이자 실학자로 북학론을 주장하였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당대 조선의 기초와는 다르게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및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고,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울어 볼 만하구나!”라고 말한 것은 비좁은 조선 땅에서 벗어나 발전된 청나라에 당도했을 때 느낀 감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청나라에 뒤쳐진 조선의 현실에 대한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다.

▣ 작품의 특징 파악 ▣

1. 이 글은 고전 수필로 인물 간의 갈등은 나오지 않는다. 정 진사와 ‘나’의 문답을 통해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 줄 뿐이다.

○ 답 분석

- ① 이 글은 수필로,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글쓴이의 경험과 소감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
- ③ 한나라 가의에 관한 고사를 예로 들고, 요동 별판을 보고 느낀 기쁨을 갓난아이가 넓은 세상에 나와 기뻐 우는 것에 비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정 진사는 ‘나’의 “한바탕 울어 볼 만하구나!”라는 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는 이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의 울음에 대한 생각은 울음은 슬플 때 흘리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참신한 생각이다.

▣ 서술상의 특징 이해 ▣

2. 이 글은 요동 별판을 바라보며 ‘나’와 정 진사가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정 진사가 묻고 ‘나’가 대답하는 문답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나’는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깨우치려 하고 있다.

○ 답 분석

- ①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비유를 통해 펼치고 있으며,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 ② 이 글은 정 진사와 ‘나’의 대화 과정에서의 문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 시간의 흐름과 경관의 변화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 ④ 요동 별판까지의 장소의 이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장소의 이동에 따른 글쓴이의 심리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⑤ 부분적으로 짧은 문장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속도감과 긴장감을 유발하려 하지는 않았다.

▣ 세부 내용 파악 ▣

3. ‘나’는 청나라 기행 중 드넓은 별판을 보면서 울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넓은 세상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그 이유를 지극한 감정은 하나로 통한다는 전제와 갓난아기의 비유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인식 과정 3단계의 ‘울음’은 떠나 온 곳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

라,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느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갑갑한 조선을 벗어나 청나라와 그 선진 문화를 새롭게 접하게 된 자신의 기쁨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답 분석

- ① 체험 과정의 2단계는 ‘나’가 드넓은 별판을 보는 것인데, 이 드넓은 별판 중에는 백담의 모습이 포함된다.
- ④ ‘나’는 넓은 세상을 보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상황에서 울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슬플 때 울음을 보인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뒤엎는 반응이다.

▣ 세부 내용 파악 ▣

4. ④는 광활한 요동 별판을 보고 우는 까닭을 묻는 정 진사의 물음에 대해 갓난아기를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만 정 진사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한 말은 아니다.

○ 답 분석

- ①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을 주된 요소로 하는 글이며, ④는 이 중 여정을 나타낸 것이다.
- ② ‘나’는 광활하게 펼쳐진 요동 별판을 보면서 아찔함을 느끼며 감탄하고 있다.
- ③ ‘나’는 기쁨이나 슬픔, 노여움 등의 칠정(七情)이 지극해질 때 울음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울음이 기쁨과 상반되어 슬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칠정 모두에 통한다는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전제로 해서 화자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순간에 ‘한바탕 울어 볼 만하구나!’라고 말한 것이다.
- 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진 광활한 요동 별판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의 이해 ▣

5. <보기>에서 제시한 당시의 현실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의 ‘어머니의 태 속’은 현실 감각이 결여된 채 공리공론만 일삼고 있는 당시 조선의 정황을, ㉡의 ‘탁 트인 넓은 곳’은 ‘나’가 보고 들은 청나라의 광활한 땅과 선진 문물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답 분석

- ①, ③ ㉠은 청나라의 문물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조선의 상황을, ㉡은 한족의 문물을 계승·발전시킨 청나라를 가리킨다.
- ④, ⑤ ㉠은 현실 감각이 결여 되어 소중화를 자칭하는 조선의 유학자들의 태도를, ㉡은 한족의 문물을 계승·발전시켜 선진 문물을 이룬 청나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IV 복합 지문

116쪽

이 도산십이곡 / 수오재기

핵심 포인트 ① 자연 ② 학문 ③ 시간 순서 ④ 불변성(영속성)
⑤ 노력 ⑥ 수오재

1. ② 2. ① 3. ⑤ 4. ①

가 이항, 「도산십이곡」

- 갈래: 연시조(총 12수)
- 성격: 교훈적, 예찬적, 도학적(道學的)
- 주제: 자연 친화적 삶의 추구하고 학문 수양의 의지
- 구성

제7수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삶의 즐거움
제8수	인간으로서 진리 터득의 중요성
제9수	성현의 행적을 따르겠다는 다짐
제10수	벼슬살이에 대한 후회와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다짐
제11수	학문 정진의 의지
제12수	끝이 없는 학문 수양의 길

• **해제:** 이 시는 퇴계 이항이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도산 서원에서 학문을 닦으며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작품으로, 언지(言志) 6곡과 언학(言學) 6곡의 총 12수로 된 연시조이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자연을 노래한 서정시라기보다는 도학적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문학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재에 실린 제7~12수는 '언학(言學)' 부분으로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이 시의 작가 퇴계 이항은 조선 성리학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 대학자이다. 그는 1561년 자신의 고향이 도산 서당을 세워 후학들을 양성하였고, 「도산십이곡」은 여기에서 쓰였다. 이 시에 대해 이항 자신이 붙인 발문(跋文)을 보면, 이 시조를 지은 이유와 그의 문학관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는 「한림별곡」 등 기존의 시가에 대한 불만에 있으며, 국문 시가는 한시(漢詩)와 달라 노래할 수 있어서 흥이 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항은 이 시를 창작한 의도는 궁극적으로 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발문에 밝혀 놓았다. 이를 통해 이항은 문학을 효용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정약용, 「수오재기」

- 갈래: 고전 수필, 기(記)
- 성격: 반성적, 성찰적, 회고적
- 주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 특징: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기록함.

• 구성

기	'수오재(守吾齋)'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
승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전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
결	「수오재기」를 쓰게 된 내력

• **해제:** 이 글은 한문 문학인 기(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글쓴이의 큰형이 자기 집에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수오재'라고 붙인 이유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은 이 글에서는 갑자기 얻게 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통찰은 어떠한 바탕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바탕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글쓴이가 장기로 귀양을 왔다는 사실이다. 외부로부터 격리된 귀양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글쓴이는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즉, 이 글은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밝히고, 교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기 성찰적인 글이라 할 수 있다.

Ⅰ 표현상의 특징 파악 Ⅰ

1. <제8수>에서 화자는 '농자(듣지 못하는 사람)'와 '고자(보지 못하는 사람)'와 '이목총명 남자(눈도 밝고 귀도 밝은 사람)'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체적 조건의 우월함을 표현하여 자부심을 느낀다기보다는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경계하여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제7수>는 초장에서 '완락재'의 풍경을 묘사하고, 중장에서 즐거운 일이 끝이 없다며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해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제9수>는 초장에서 유사한 구절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장-중장-종장으로 이어지면서 앞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뒤에서 서술하는 연쇄적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제11수>는 자연물인 '청산'과 '유수'의 영속성에 인간적 가치인 '학문 수양의 끊임없는 정진'을 부여하여 이를 본받고자 한다.
- ⑤ <제12수>는 '귀 아니 쉬운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학문 수양은 쉽다는 것을, '귀 아니 어려운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학문 수양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Ⅰ 세부 내용의 파악 Ⅰ

2. 이 글의 글쓴이가 물질적인 것(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첫째, '밭'이나 '집'과 같은 것은 이를 가지고 이동할 수 없으며, 둘째, '책'이나, '옷', '양식'과 같은 것은 세상에 매우 많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으므로(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므로) 웅색하게 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이나 곡식은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② (나)의 '그런데 오직 내[품]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에서 알 수 있다.

- ③ (나)의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을 뛰어다녔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나)의 '그러나 나[품]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나)의 마지막 부분에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나[품]'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의 파악

3. ㉔은 큰형님이 '수오재'의 이름의 의미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 큰형님이 '나[품]'를 지키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표현하였음을 일컫는 말이다. 글쓴이의 큰형님은 '수오재'의 의미를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하였다.

오답 분석

- ① ㉑의 '만권 생애'는 많은 책에 문혀 사는 삶을 일컫는 말로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고 있다.
- ② ㉒에서 '고인(古人)'은 옛 성현을 의미하며 비록 고인은 못 보더라도 그가 갔던 학문의 길은 (책을 통해) 앞에 놓여 있으니 그 길을 가겠대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 ③ ㉓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학문 수양을 할 것이며 그 와중에 늙는 줄도 모를 정도로 깊게 몰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나[품]'는 자신이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존재이다. 이 나[품]가 없다면 자신은 여러 세속적 이익에 흔들리고 현실적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품]는 중심을 잡아주는 본질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작품 간의 비교 감상

4. ㄱ에서 [A]의 '어디'는 학문 수양을 하지 않고 벼슬길에 올랐던 때를 이야기하고, [B]의 '큰길' 또한 12년 동안 비단 도포를 입고 조정에 나아가았던 일을 이야기하므로 '벼슬'이라는 세속적 유혹에 흔들렸다는 ㄱ의 설명은 적절하다. ㄴ에서 [A]의 '년 더 막춤'은 벼슬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B]에서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를 하고자 했던 것도 벼슬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므로 이 둘의 의미는 유사하다.

오답 분석

- ㄴ. [A]의 '년 더 막춤'은 벼슬길을 하기 전 부지런히 학문을 수양했던 것을 의미하고 [B]에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은 화자가 귀양을 와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A]의 '년 더 막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ㄴ은 적절하지 않다.
- ㄷ. [A]의 '이제사 도라온고.'는 학문 수양을 하지 않고 벼슬길에 갔다가 다시 학문을 수양하러 돌아왔다는 의미로 엄한 곳에 잠시 빠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B]의 '대나무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도 본래 돌아올 곳에 제대로 돌아왔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설명한 ㄷ은 적절하지 않다.
- ㄹ. [A]의 '당시'는 벼슬길을 하기 전 부지런히 학문을 수양했던 때를 의미하고, [B]에서 화자가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을 뛰어다닌 시기는 벼슬을 했던 시기를 의미하므로 ㄹ은 적절하지 않다.

02 고향 / 토막

핵심 포인트 ① '그' ② 대화 ③ 고향 ④ 공간적 ⑤ 비참한 ⑥ 금녀

1. ④ 2. ① 3. ④ 4. ③

가 현진건, 「고향」

-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배경: 시간적-1920년대 일제 강점기 / 공간적-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
- 주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은 비참한 생활상에 대한 폭로
- 특징: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주제를 입체적으로 드러냄. ② 노래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주제를 드러냄.

구성

발단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동양 삼국의 복장을 하고 천박하게 행동하는 '그'를 만남.
전개	'나'는 '그'와의 대화를 나누며 서울로 막별이하려 가는 '그'의 신세를 알게 되고 동정심을 느낌.
위기	'그'는 대구 근교에서 평화롭게 살던 농민이었으나, 농토를 잃고 파란 많은 유랑 생활을 하였음.
절정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갔으나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옛 정혼자를 우연히 만나 기구한 인생사를 들었음.
결말	'나'는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그'는 당대 현실을 함축한 노래를 부름.

- 해제: 이 글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에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의 모습을 배경으로, 식민지 현실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았는지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다. 액자식 구성의 서사 구조와 한 인물의 구체적인 인생 역정을 통해 당대 조선의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실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유치진, 「토막」

- 갈래: 장막극, 사실주의극
- 성격: 사실적, 비판적
- 주제: 일제의 가혹한 억압과 수탈의 참상 고발
- 특징: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음.

구성

발단	토막에 사는 명서네 가족은 아들 명수가 일본에서 돈을 벌어 올 것이라 기대함.
전개	구장 영감이 신문을 들고 와서 명수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예심에 넘겨졌다고 말해 줌.
위기	명수가 종신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명서의 처는 충격을 받고 거의 실성한 상태에 이룸.
대단원	얼마 후 우편배달부가 명수의 유골을 전달하자 명서 부부는 오열하며 절규하고 딸 금녀가 이들을 위로함.

- 해제: 이 글은 사실주의 희곡의 대표작으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참상을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1920년대의 궁핍한 농촌을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비참한 현실상을 보여 주고 있는 이

같은 병자인 '명서', 정신 이상자인 '명서 처', 민족적 저항의 희생자 '명수'와 같은 다양한 인물을 통해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퇴락한 토막의 음습하고 어두운 분위기와 가난하고 병든 명서 가족의 삶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Ⅰ 서술상의 특징 파악 Ⅰ

1. [A]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나'가 전해들은 '그 여자'에 대한 내용으로, '그'와 혼인 말이 오갔던 '그 여자'의 비참한 과거 인생사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분석

- ① '그 여자'가 겪어 온 과거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 ② '그 여자'와 관련된 구체적 외양 묘사가 나타나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 인물 간 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관점의 차이 또한 나타나고 있지 않다.
- ⑤ 서술자인 '나'가 아닌 '그'가 경험한 내용이며, 대상인 '그 여자'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Ⅰ 주요 소재의 의미 파악 Ⅰ

2. (가)의 '술'은 '나'가 비참을 삶을 살아온 '그'와 '그 여자'의 삶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당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의 비애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의 '소포'는 명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온 대상으로 작품 전체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술'과 '소포' 모두 인물 간의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인물 간에 유지되고 있던 정서적 공감대를 심화하고 있는 것은 '소포'가 아니라 '술'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 ④ '술'이 '그'의 과거 경험이나 그로부터 비롯한 비참한 심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소포'가 갈등을 겪던 인물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소포'가 특정 인물, 즉 '명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술'은 특정 인물의 소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소재가 아니다.

Ⅰ 세부 내용의 이해 Ⅰ

3. ㉞은 명서 처의 뒷부분 대사 '~이것이 올려구 그랬던가 봐, 당신은 우환이니 뭐니 해도…….'를 통해, 명서 처가 아침부터 자신이 예감했던 것처럼 명수에 대한 소식이 도착했음을 의미한다. 즉 명수 소식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애써 떨치려 노력한 불안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편배달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㉞은 '서까래'와 '주추'가 썩어 넘어지고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모습을 통해 폐허가 되어 버린 고향의 비참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 ② ㉝은 '한 이웃에 살던 사람', 즉 '그 여자'의 인생살이가 자신이 겪어 온 기구한 인생에 못지않게 비참하였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 ③ ㉞은 명서 처의 '귀한 사람이 와유.'라는 말에 대해 '미쳤수!'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안하게만 보이는 아내의 비정상적 행동들이 '집안의 우환', 즉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킬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말이다.
- ⑤ ㉞은 금녀가 자신의 오빠에 대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아들의 백골을 받고 실의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아버지 명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말이다.

Ⅰ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Ⅰ

4. ㉠의 '되려 멍청해지며'는 명서가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어떤 적극적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망연자실함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이때 과장된 몸짓을 덧붙여 연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왜 밖에 문패도 없소?'라는 말로 보아, 이때 우편배달부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명서네 집의 사립문 안쪽으로 들어서도록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빨리 도장을 내요.'라고 다그치는 우편배달부의 말을 듣고 '반항적 어조로' 명서가 대꾸하는 장면이므로,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맞서는 태도가 부각되도록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아들 명수의 죽음을 확인한 후 그 백골이 담긴 께짜를 들고 비틀거리는 장면으로, 명서가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과 사회에 대한 분노심이 잘 드러나도록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장면으로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고려한 '적막을 찢는' 분위기에 맞게, 불안감을 자아내는 날카로운 음색의 바람 소리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가 심화될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분석

희곡의 특성과 감상 방법

서사적	소설과 같이 서사적 특성을 지님.
공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연기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을 염두에 둬. • 작품의 주제나 극 중 분위기를 인물의 대사와 행동, 무대 장치, 음향 효과(작품의 극적 분위기를 고조하거나 무대 전환 시 극적 효과를 높임.) 등을 통해 전달함. •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동작, 표정 등을 섬세하게 연출해내기도 함.



감상 방법

희곡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극의 분위기나 인물의 심리 등이 연출될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감상해야 함.



개를 소재로 한 시조의 전승과 변모

핵심 포인트 ① 소망(기대) ② (나) ③ (가) ④ 원망 ⑤ 우회적 ⑥ 해학적 ⑦ 의성어와 의태어 ⑧ 일곱 마리 개의 개 ⑨ 낯선 타처 사람 ⑩ 낯익은 집안사람

1. ⑤ 2. ⑤ 3. ②

개를 소재로 한 시조의 전승과 변모

- 갈래: 설명문, 비평문
- 주제: 개를 소재로 한 시조 네 가지를 통해 알아보는 시조의 변모 양상

- 특징: 네 가지의 시조를 예로 들어 이해를 도움.

• (가), (나) 개를 소재로 한 시조

- 갈래: 평시조
- 성격: 서정적, 연정가
- 주제: 멋진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
- 특징: 개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함.

- 구성

초장	개에게 짓지 말라고 부탁함.
중장	개에게 짓지 말라고 부탁한 이유를 설명함.
종장	이후 부탁의 결과 제시

- 해제: 이 시는 여성 화자가 멋진 남성(‘두목지 호걸’)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개에게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조이다.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개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다) 작자 미상,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 갈래: 사실시조
- 성격: 익살적, 해학적
- 주제: 입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 특징
 - ① 사랑하는 입을 기다리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함.
 - ② 개의 동작을 묘사한 부분이 매우 구체적임.

- 구성

초장	알미운 개 소개
중장	미운 입을 반기고 고운 입을 돌아가게 하는 개의 알미운 행동
종장	선밥이 생겨도 알미운 개에게는 먹이고 싶지 않음.

- 해제: 이 시는 입을 기다리는 심정을 ‘개’를 소재로 한 일상어로써 소박하고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실시조이다. 초장과 종장은 원래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중장은 그 파격이 충분히 인정될 만큼 길이가 확장되어 있다. 형식적 파격과 함께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롭고 발랄한 감정 표현, 혹은 현실에서 흔히 겪는 일상적인 사실이나 감정을 소재로 하여, 참신하고도 기발하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 (라) 작자 미상, 「살구」

- 갈래: 사실시조

- 성격: 비판적, 비유적
- 주제: 한일신협약에 찬성한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
- 특징
 -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 ②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특정 대상을 비판함.

- 구성

초장	알미운 일곱 마리 개 소개
중장	낯선 타처 사람을 반기고 낯익은 집안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개의 알미운 행동
종장	개 입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워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함

- 해제: 이 시는 (다)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이나 주제를 바꾸어 새롭게 변모되었다. (다)에 1907년 한일신협약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부여하여, 한일신협약에 찬성한 정미칠적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의 ‘개’를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정미칠적)로, (다)의 ‘미운 입’을 ‘낯선 타처 사람’(일본인)으로, (다)의 ‘고운 입’을 ‘낯익은 집안사람’(조선인)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다)와 (라) 두 시의 관계는, 유사한 작품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전승되고 변모된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한일신협약은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법령 제정권, 관리 임명권, 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 채용 등의 7개의 조목으로 되어 있으며 정미칠적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에 찬성하고 이토 히로부미와 조인한 일곱 명의 대한제국 내각 대신들(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이재근, 임선준)을 정미칠적이라고 한다

Ⅰ 세부 내용의 이해 Ⅰ

1. (라)의 ‘일곱 마리’ 개는 ‘낯선 타처 사람’은 반기고, ‘낯익은 집안사람’에게는 사납게 굴고 있다. 즉, ‘낯익은 집안사람’을 더 반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의 모습을 보고 (라)의 화자는 시조의 초장에 ‘알미다’는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하기야키’는 일본인이 조선의 도자기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만든 도자기이다.
- ② 이 글에서 시조의 대표적 사례로 작품의 전승 과정과 변모 양상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조를 제외한 다른 문학 작품이 전승 과정에서 변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③ 수록된 시조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바라던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와 (나)의 화자는 ‘호걸’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④ (다)의 ‘선밥’은 화자에게는 먹다 남은 밥이며, 개에게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먹이다. 이러한 ‘선밥’이 많이 있더라도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화자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알미운 개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만 간접적으로는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Ⅰ 구체적 내용의 적용 Ⅰ

2. (라)의 화자가 ‘남성’이라는 것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다. 또

한 (다)에서 (라)의 변모가 ⑥(작품 차원의 변모)인 것은 (다)의 글에 '한일신협약'과 이에 찬성한 '정미칠적'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부여되어 새로운 주제 의식을 보였기 때문이지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이 더욱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가)와 (나)는 모두 '개'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멋진 남성이 오기를 바라는 공통된 주제 의식을 보여 주고 일부 표기만 바뀌었으므로 변모 양상은 ㉠이다.
- ② 이 글에서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 작품이 먼저 전승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나)에서 (가)의 변모 양상은 ㉠이다.
- ③ (나)와 (다)는 각각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으나 (다)는 중장이 장형화되어 사설시조로서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평시조에서 사설시조의 갈래 변경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변모 양상은 ㉡이다.
- ④ (라)는 (다)의 '요 개'를 '일곱 마리의 개로 변용하여 한일신협약을 주도한 정미칠적을 암시하고 있으며, '낮선 타처 사람', '낮익은 집안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 일본인, 조선인을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다) 작품의 변용에 큰 역할을 했으므로 변모 양상은 ㉢이다.

Ⅰ 향유 양상의 추론 Ⅰ

3. (가)와 (나)의 표기가 다른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조금씩 변하는 언어의 역사성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기하였다는 합리적 추론의 근거는 없으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자 했다면 일본 도자기에 굳이 한글로 조선의 시조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일본으로 끌려 간 도공들이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에 굳이 한글로 시조를 새긴 이유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고 (가)를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다)의 화자는 '개'에게 '선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알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운 입'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애꿎은 개에게 화풀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회적'으로 입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라)의 제목 '살구'는 '개를 죽이다.'라는 의미이며, 이때 개는 일곱 마리의 알미운 개를 가르킨다. 이 시에서 일곱 마리의 알미운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단어이므로, 화자의 비판 의식을 가감없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근일에 새로' 반포된 '개 규칙'은 개 주인의 이름을 개 목에 채우는 것이다. 이는 일곱 마리의 개(정미칠적)에게 개 주인이 누구인지(조선인)를 분명히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개(정미칠적)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04 영웅 소설의 영웅화 기법과 변화 양상/임진록

핵심 포인트 ① 영웅의 일대기 ② 전쟁 ③ 초인적 능력 ④ 허구

1. ① 2. ③ 3. ③

가) 인기수, 「영웅 소설의 영웅화 기법과 변화 양상」

- 갈래: 논설문
- 성격: 분석적
- 주제: 영웅 소설에 나타난 영웅화 기법과 당 시대인의 요구에 따른 영웅 소설의 변화 과정
- 구성

1 문단	영웅 소설의 인물 구성과 주인공의 영웅성 부각의 방법
2, 3 문단	영웅 소설에 나타난 네 가지 영웅화 기법
4 문단	당시대인의 욕망 수용에 따른 영웅 소설의 변화

• 출처: 인기수, 「영웅 소설의 창작 기법과 작가 의식 연구」(2004)

나) 작자 미상, 「임진록」

- 갈래: 국문 소설, 군담 소설, 역사 소설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임진왜란 전후 / 공간적-조선 팔도 및 왜국
- 성격: 전기적, 설화적, 역사적, 허구적
- 주제: 임진왜란에 대한 설욕 및 민족적 응전 의지 고취
- 특징

- 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화와 혼용하여 창작됨.
- ② 영웅적 인물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전개됨.

• 구성

발단	최일경이 선조의 꿈을 해몽하다 왜의 침략을 예견하고 보고하지만, 도리어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을 감.
전개	왜군이 침략하자 이순신 등은 많은 활약을 펼치지만 전사하고, 김덕령이 도술로 왜군을 격파함.
위기	민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하는데, 선조는 도망을 가고 양반들은 민중을 외면함.
절정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육지와 바다에서 왜군을 격퇴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끔.
결말	임진왜란이 끝나고 왜군이 채찍하려고 하자, 사명당이 왜왕을 굴복시키고 항복 문서를 받아 옴.(→ 수록 부분)

• **해제:** 이 글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전쟁 소설로, 현실적으로는 패한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을 승전사로 꾸며 놓은 군담 소설이다. 민중들은 이 글을 통해 패배 의식을 극복하고 정신적 보상을 얻고자 하였다.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 준 전란이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큰 것이었다. 그러므로 「임진록」은 우리 민족이 왜적에게 비참한 피해를 입게 된 나머지 갖게 된 왜적에 대한 원(怨)과 한(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배경으로 작품 감상하기:** 사명당은 조선 중기의 승려로, 속명은 임응규, 법명은 유정이다. 임진왜란 때 스승인 서산 대사 휴정과 승병을 이끌고 참전, 명군과 연합해 평양성을 탈환하는 등의 공을 세우고 1604년 사신으로 왜국으로 가 전란 때 포로가 된 3천여 명의 조선인들을 구해서 돌아왔다. 이와 같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큰 활

약을 펼친 구국의 영웅으로서 민간 설화에 큰 영향을 끼쳐, 사명당이 왜에 가서 신이한 능력으로 왜왕을 굴복시켰다는 내용의 사명당 설화가 전승되었다.

▣ 세부 내용의 이해 ▣

1. (가)의 첫 문단의 '영웅 소설의 갈등 구조는 ~ 신화적 인물의 일방적인 형상화 방법과는 다른 현실적 인물의 영웅화 기법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실적 인물을 영웅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통한 전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분석

- ② 마지막 문단에서 후대로 올수록 영웅은 낭만적 전망을 탈피함으로써 사실적 성향의 영웅 소설 창작 기법이 등장하였으며 역사적 영웅에서 비역사적 영웅으로 변모되었다고 하였다.
- ③ 영웅화는 후대로 갈수록 낭만적 분위기를 탈피하고 사실적 성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 ④ 후대로 오면서 영웅은 D 유형의 평범한 영웅상으로 변모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영웅의 능력 형성이 타력에 의한 능력 형성 쪽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신화적 주인공과 국가적 난세기를 영웅적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A 부분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체가 스스로 지향 가치를 달성하는 경우이므로 자력에 의한 현실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세부 구절의 파악 ▣

2. ㉠은 왜왕이 예절이 맞지 않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계획이 사명당의 뛰어난 능력으로 실패로 끝나자 철마를 활용한 계획이 또다시 실패할 경우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 오답 분석

- ① 이 부분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사명당이 알고 있음을 설명하는 편집자적 논평(작가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이다.
- ② 사명당은 '얼음 빙(氷)'자를 써서 왜인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기가 과해지자 한 손의 얼음 빙자를 버리면서 추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사명당의 능력이 뛰어난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왜인들이 철마를 활용하여 사명당을 없애려 하지만, 사명당은 서산 대사와 사해 용왕의 힘을 빌려 왜국을 홍수에 빠지게 한다. 이는 왜국의 계략이 오히려 왜국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⑤ 사명당은 사해 용왕의 힘을 빌려 왜국을 홍수에 빠트렸다가 비를 멈추게 하는데, 이는 사명당이 물난리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목숨을 살려 달라는 왜왕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왜왕이 사명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해설 더하기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란 소설에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서술자의 개입' 혹은 '작가의 개입'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현대 소설 보다는 고전 소설에 더 많이 등장한다. 보통 '~더라', '~도다', '~는가', '~리라' 등의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 내적 준거를 통한 작품의 감상 ▣

3. [B]는 사명당이 비록 변화지술을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명당은 용왕에게 받은 편지와 스승인 서산 대사의 초월적 능력의 도움을 받아 왜왕의 계략을 이겨내고 왜국을 위기에 빠뜨린다. 주체가 초월적 능력을 가진 타인의 도움으로 지향 가치를 달성하는 경우는 C에 해당한다.

○ 오답 분석

- ① 사명당은 앞선 왜인들의 계략에는 자력에 의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였으나, [B]에서는 사해 용왕과 서산 대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 ② 사명당이 도술을 사용하는 것은 초월적 능력에 해당하며, [B]는 사해 용왕과 서산 대사의 초월적 능력의 도움을 받고 있다.
- ④ [B]에서 사명당은 사해 용왕과 서산 대사의 도움을 받는데, 이들은 초월적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 ⑤ [B]에서 사명당은 초월적 능력을 획득하지 않았으며, 자력이 아닌 타력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05 한국 문학의 자연관/꽃/풍란

핵심 포인트 ① 이미지 ② 경이로움 ③ 관조적 ④ 긍정적

1. ④ 2. ② 3. ④ 4. ③ 5. ④

가 한국 문학의 자연관

- 갈래: 설명문
- 성격: 객관적, 분석적
- 주제: 한국 문학에서 자연물의 의미와 분석 방법
- 특징
 - ①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해 화제를 분석적으로 설명함.
 - ② 구체적 사례를 들어 화제의 속성을 밝힘.
- 구성

1문단	자연을 다루어 온 한국 문학의 전통
2문단	문학 속 자연의 의미
3문단	문학에서의 자연을 파악하는 방법
4문단	자연물을 소재로 한 박두진의 작품 세계
5문단	난을 소재로 자연의 질서와 리듬을 발견하려 했던 이병기의 작품 세계

- **해제:** 이 글은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자연이라는 소재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조선조 문학 이후로 한국 문학에서는 자연의 긍정적 가치를 노래한 작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 자연물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바솔라르가 언급한 자연의 이미지와 작품 속에 내면화된 의미를 상상력을 통해 찾아내는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나 박두진, 「꽃」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서정적, 관조적, 비유적
- **주제:**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
- **특징:** ① 비유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냄.
② 짧고 간결한 어조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③ 의인과 돈호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함.

구성

1연	꽃을 통해 본 자연의 신비
2~3연	일회적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고귀함
4~5연	황홀하고 사랑스러운 꽃

- **해제:** 이 시는 꽃이 피는 과정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신비와 경이를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성찰하며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는 방식이나 은유법을 활용하여 생명 탄생의 과정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즉 생명 탄생을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가의 인식에서 생명 현상을 탐구하고 성찰하려는 태도를 잘 엿볼 수 있다.

다 이병기, 「풍란」

-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 **성격:** 관조적, 예찬적, 체험적
- **주제:**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 **특징:** ① 역사적 사건들과 난초를 키우는 일을 연관시킴.
② 자신의 시조를 삽입하는 등 운문 형식을 활용함.
③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여 난초를 키우는 일에 대한 의미를 제시함.

구성

처음	난에 대한 글쓴이의 친화감 (생략 부분)
중간	글쓴이가 난을 길러 온 과정과 경험
끝	난에 대한 글쓴이의 각별한 애정과 인식

- **해제:** 이 글은 난(蘭)과 함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느낀 교감을 단아한 문장으로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난을 고결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의 아름다움과 생태, 난과의 인연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난이 지닌 기품과 향을 담담하게 기술한다. 즉 난의 품(品)과 향(香)이 비록 감추어져 있어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존재는 비록 잘 알려지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음을 은연 중에 비추기도 한다. 글쓴이에게 난은 그의 정신 세계를 대변하는 동시에 고결한 인간적 면모를 상징하는 소재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난의 속성을 말함으로써 정신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1 세부 내용의 이해 1

1. (가)의 3문단에서 바솔라르는 대상에 대한 경험이 독자들에 심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바솔라르가 대상에 대한 경험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가)의 1문단에서 '조선조 문학은 대부분 서정적 정감이나 교훈을 드러내는 데 자연물을 매개하여 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의 1문단에서 '한국 문학에서도 자연을 인간이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그리거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와 공존 등의 긍정적 가치를 노래한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③ (가)의 3문단에서 '자연물이란 물질은 작품 속에서 이미지로 표상되고, 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상상이나 인식을 하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의 3문단에서 '이는 문학가의 믿음, 이상, 사고의 심층적 상상 세계를 파악하려면 작품에 나타난 자연물의 속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 표현상의 특징 파악 1

2. (나)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화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어적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각 연이 '울음', '피 흘림', '핏방울', '정적' 등으로 종결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피 흘림', '핏방울' 등은 모두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 ④ '호심야'에서 대상을 부르는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해와 달의 속삭임'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나타나 있다.

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1

3.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가 남았다는 것은 전쟁 이후 참혹한 광경을 나타낸 것으로 난의 생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오답 분석

- ① '비밀한 울음'은 꽃의 개화 과정을 살아 있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먼 별에서 별에로의'를 통해 생명의 탄생이 먼 우주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현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펼치면 일렁이는'은 대상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개화 직후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꽃의 역동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 ⑤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는 난을 기르는 것이 곧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를 다듬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1

4. 글쓴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 옹란이 가장 진귀하다는 것은

웅란의 가치를 언급한 것이지 난과의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글쓴이가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에서도 난을 기르려는 것은 난을 통해 위안을 받으며 험겨운 시대를 버티려는 의지와 관련 있다.
- ② 글쓴이가 난초의 맑고 향기로운 향을 즐기려는 것은 옛 선비들의 깨끗하고 고결한 삶의 태도와 연관된다.
- ④ 글쓴이는 어느 집에 가 난을 기르는데 따라 그 주인의 성품을 안다는 것으로 난초에 사람의 정신세계가 담겨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고서, 난, 술이 있으면 삼공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글쓴이가 삼공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려는 태도와 연관된다.

| 작품 간의 비교 감상 |

5. [A]의 '바람으로 사노니.'는 난초의 생태를 나타낸 진술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보기>의 '참고 견디네.'는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과 한탄을 나타낸 진술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답 분석

- ① [A]의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 빛'은 난초 꽃의 색깔, <보기>의 '꽃 한 송이 가지 늘렸네.'는 축규화가 피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다.
- ② [A]의 '씩은 향나무 껍질'과 <보기>의 '거친 발 언덕 쓸쓸한 곳'은 각각 난초와 축규화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나타낸다.
- ③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과 <보기>의 '향기 날리고'는 난초나 축규화가 내는 향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대상이 지닌 속성과 관련된다.
- ⑤ [A]의 '아는 이는 아노니.'는 난초의 특성을 아는 이가 있을 것, <보기>의 '누가 보아 주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한탄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 분석

최치원, 「축규화」

갈래	한시(5언 율시)
성격	애상적, 탄식적, 체념적
주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경후정으로 대칭된 구조를 지님. •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척박한 곳에 피어난 축규화 • 함: 화자의 완숙한 학문의 경지 • 경: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 마: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
창작 배경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 중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는데, 신라 태생으로 차별을 받아 그 한을 한시로 남김.